

碩士學位論文

高麗初期 新羅系 政治勢力 考察

指導教授 秦 榮 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10. 677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韓 在 榮

2001年 2月

# 高麗初期 新羅系 政治勢力 考察

指導教授 秦 榮 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10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韓在榮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 고려초기 신라계 정치세력 고찰

한 재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지도교수   진 영 일

고려 초기, 즉 고려 왕조 개창 이후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약 70년간의 기간은 시대적 전환기로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어 왔던 시기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고려 초기 사회를 주도한 다양한 정치 세력 중에서 특히 신라계 정치 세력을 주목하고 이들이 신라가 멸망한 뒤에도 고려의 정치 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하여 나아가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과 요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하였다.

신라계 세력과 고려 지배 세력과의 연계성을 살피는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한다. 망국의 왕족이나 지배층으로서 새 왕조의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한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혁명이나 정복에 의한 왕조 교체가 아닌 경우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계 정치세력은 어떻게 이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점차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

본고에서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신라계 정치 세력이 고려 초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려의 정치 사회를 이끌어 간 주도 세력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고려 초기 신라계 세력은 태조 이래 광종, 경종 연간을 지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왕위 계승 문제와 체제 정비 과정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종대 체제 정비 과정에서는 새롭게 유교 정치 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필자가 본고에서 고찰한 시기는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약 70년의 기간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신라계 세력들이 초기의 정변과 정치적 개혁 및 왕위 계승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는지 살폈다. 특히 신라계 세력의 고려 유입 과정과 광종대에서 성종 년간에 이르는 시기에 신라계 정치 세력이 크게 부상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 '신라계 정치 세력'이라 함은 자신의 출신을 신라로 인식하면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유지하였던 귀부한 신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신라계 세력이 고려의 정치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다. 하나는 옛 신라의 우수한 유학자, 문장가들이 고려의 관직자 집단으로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동시에 옛 신라 왕족의 후손의 고려 왕통 계승이 가능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아쉬운 점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지 못하여 추론적인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미흡하나마 정리하면서 고려 초기의 정치적 지배 세력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2001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                           |    |
|---------------------------|----|
| I. 머리말                    | 1  |
| II. 新羅系 政治勢力의 고려 유입       | 5  |
| 1. 敬順王의 歸附와 신라계 정치세력      | 5  |
| 2. 신라계 정치세력의 존재 양상        | 13 |
| III. 新羅系 政治勢力의 內在的 成長     | 23 |
| 1. 고려 초기의 왕위 계승과 신라계 정치세력 | 23 |
| 2. 光宗의 개혁정치와 신라계 정치세력     | 29 |
| 1) 신라계 세력의 저변 확대          | 29 |
| 2) 新進勢力의 대두와 신라계 정치세력     | 36 |
| 3) 功臣肅清과 신라계 정치세력         | 41 |
| IV. 新羅系 政治勢力의 浮上          | 47 |
| 1. 景宗代의 復古的 政變과 신라계 정치세력  | 47 |
| 2. 成宗代의 官制改編과 신라계 정치세력    | 58 |
| 3. 舊新羅 왕실의 동향과 신라계 정치세력   | 65 |
| V. 맺음말                    | 71 |
| 〈참고문헌〉                    | 74 |
| 〈ABSTRACT〉                | 79 |

## 표 목 차

|                              |    |
|------------------------------|----|
| <표 1> 光宗代の 進士科 及第者 一覽表 ..... | 32 |
| <표 2> 高麗의 科擧 施行 .....        | 63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I. 머리말

고려 초기의 정치·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려 초기, 즉 고려 왕조 개창 이후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약 70년간의 기간은 시대적 전환기로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이 시대의 정치 형태가 '호족연합정권(豪族聯合政權)<sup>1)</sup>으로 성격지워진 가운데, 고려 건국 이래 잇달아 일어난 일련의 정치·사회·군사적 사태들이 주로 왕권과 호족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풀이되곤 하였다. 그러나 근간에 이르러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up>2)</sup>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 초기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세력을 편의상 크게 신라계(新羅系)와 비신라계(非新羅系) 정치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신라계 정치 세력'이라 함은 경순왕과 함께 고려의 관직자 집단으로 편제되었던 구신라의 왕족, 진골, 신라의 관료이거나 6두품 출신 및 경주 부근의 호족 등 귀부 신라인 세력들을 말한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출자(出自)를 신라로 인식하면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유지하였다고 여겨지는 귀부 신라인 중심의 정치 세력을 말하는데, 필자는 이들이 성종 이후 문벌 귀족화되기 이전까지를 한정하여 '신라계 정치 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1) 당시의 정치 형태가 호족연합정권이었다는 견해는 6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李基白, 「王建」, 『高麗의 人間像』 2, 1965). 그후 이러한 견해를 강화하는 연구(李泰鎮, 「高麗 宰府의 成立」, 『歷史學報』 56, 1972 ; 河炫綱,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7)가 이루어져 '豪族聯合政權說'이 통설화되기에 이르렀다.

2) 朴菴熙, 「高麗初期 '豪族聯合政權說'에 대한 檢討—'歸附'豪族의 정치적 성격을 중심으로—」, 『韓國史의 視角』, 永言文化社, 1984과 嚴成鎔, 「高麗初期 王權과 地方豪族의 身分變化—'豪族聯合政權說'에 대한 檢討—」,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및 黃善榮, 「高麗 太祖時期 官僚研究」, 『東義史學』 3, 1987.

비신라계 정치 세력으로는 건국과 통일의 주체로서 고구려 고도 회복이라는 명분을 제공한 서경(西京)을 중심으로 한 서북 출신의 호족 공신 세력<sup>3)</sup>과 고려에 내투(來投)한 후 고려의 통일과 민족 형성에 기여한 바 있는 발해계(渤海系) 세력<sup>4)</sup>과 같은 고구려계(高句麗系) 세력을 비롯하여 후백제(後百濟)계 세력, 그리고 지방 출신의 문사층(文士層)에 해당하는 인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세력 중에서 필자는 특히 고려 초기 신라계 정치 세력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비신라계 세력에 비하면 군사적, 경제적 기반은 물론이거니와 재지적(在地的) 기반마저 열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국과 통일의 주체로서 태조대의 무장 공신 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비신라계 세력을 제치고 결국 고려의 정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세력이 고려의 정치 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고려 초기 신라계 정치 세력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여 고려에 귀부(歸附)한 이후 이들 세력의 존재 양상과 동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고려 초기 옛 신라계 세력의 향방을 살피는데 있어서, 신라계 세력과 고려 지배 세력과의 연계성을 살피는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혁명이나 정복에 의한 왕조 교체가 아닌 경우에 더우기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주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는 정치 세력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5)</sup>

- 
- 3) 秦榮一, 「高麗諸王의 西京巡幸考」, 『濟州大學校論文集』(인문·사회과학편) 25, 1987, pp.197~213 및 李在範, 「高麗太祖即位時의 社會動向에 관한 一考察」, 『阜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史學論叢』, 일월서각, 1995, pp.473~500.
- 4) 韓圭哲, 「高麗來投·來往契丹人」, 『韓國史研究』 47, 1984, p.6 및 朴玉杰, 「高麗時代의 渤海人과 그 後裔」, 『溪村閔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88, p.184 에 의하면 발해유민 중 내투한 인원이 적게는 4만여, 많게는 12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5) 李基白, 「高麗成宗代의 政治的 支配勢力—慶州·羅州 地方 출신의 儒學者들과 近畿地方 출신의 豪族系 官僚들」, 『湖南文化研究』 6, 1974와 全基雄, 「高麗初期의 新羅系 勢力과 그 動向」, 『釜大史學』 17, 1993, 俞炳基, 「高麗初期 政治支配勢力에 對한 一考」, 『慶熙史學·朴性鳳教授回甲紀念論叢』 제14집, 1987 및 黃善榮, 「高麗初期 政治勢力의 動向과

특히 전기웅의 연구는 신라인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태조대의 경순왕의 귀부와 관련한 인물을 분석하면서 고려 초기 신라계 세력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려의 정치 사회를 이끌어 간 중추적 주도 세력이었음을 밝히고 있는데,<sup>6)</sup>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는데 많은 부분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전기웅은 신라 귀부인이 고려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배경으로서 신라 6두품 출신 지식인들의 역할과 활동 및 고려 초기의 권력 구조 속에서 신라 왕족들의 동향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분석한 인물들은 주로 태조대의 귀부 신라인에 집중적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신라계 왕실 세력의 동향을 살피는데 있어서는 실증적인 학문의 영역 내에서 일화, 설화 등을 통한 문학적 내지는 추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 초기 전반에 걸쳐 신라계 세력이 점차로 정치 세력화해 나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려 초기 정치 사회를 이끌어간 주도 세력을 신라계 세력과 근기(近畿) 지역 출신,<sup>7)</sup> 혹은 화풍(華風)과 토풍(土風)<sup>8)</sup>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세력 집단과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양자의 갈등이 현종의 즉위를 둘러싼 김치양(金致陽)의 난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견해<sup>9)</sup>가 있다. 근래에는 고려 초에 활동한 신라계 출신 세력의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두고 평가하면서, 고려 초기 정권을 호족 연합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아예 신라와의 연합 정권으로 보려는 견해까지 나타나고 있다.<sup>10)</sup>

망국의 왕족이나 지배층으로서 새 왕조의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한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계 정치 세력은 어떻게 이러한 지위

3省 6部制 成立의 背景」, 『釜山女大 史學』 10·11 합집, 1993.

6)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p.131~162.

7)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p.1~19.

8) 具山祐,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의 性格」, 『韓國史研究』 17, 1992.

9) 李泰鎮, 「金致陽亂의 性格-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의 推移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17, 1977. pp.67~112.

10) 黃善榮, 앞의 논문, 1993. p117.

11) 後三國의 다른 한 국가였던 後百濟의 경우 그 지배층은 고려의 정치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다. 투항한 甄萱이나 朴英規의 경우도 결국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이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수는 없었다.

에 오를 수 있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점차 정치적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주로 신라 6두품과 지방 출신 문사(文士)들의 동향에 대한 분석 정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게다가 연구 범위가 일부 시기에 국한하여 부분적으로 고찰한 것은 많으나 고려 초기 전반에 걸친 신라계 정치 세력의 동향과 그 성장 과정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별로 없다.

필자는 고려 초기 신라계 세력은 태조 이래 광종, 경종 연간을 지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료 체제 정비 및 왕권 강화 과정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 성종대 체제 정비 과정에서는 신라계 정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최승로(崔承老)의 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로 대표되는 유교 정치 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sup>12)</sup>을 말하고 싶다.

필자는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시기를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 약 70년의 기간으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신라계 세력들이 초기의 정변과 정치적 개혁을 겪으면서 비신라계 무장 공신 세력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적 변혁 과정에서 신라계 정치 세력이 내재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되, 특히 신라계 세력의 고려 유입 과정과 광종대에서 성종 년간에 이르는 시기에 신라계 정치 세력이 크게 부상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연구는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및 최승로(崔承老)의 상서문에 보이는 오조정적평(五祖政績評)을 중심으로 한 추론적인 것이 내용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흡하나마 질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고려 초기의 정치적 지배 세력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2) 李基白, 「高麗 貴族 社會의 形成」, 『한국사』 4, 국사편찬위, 1977.

金哲垞,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 『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中央圖書出版社, 1965.

河炫綱, 「高麗初期 崔承老의 政治思想 研究」, 『梨大史苑』 12, 1975.

金皓東, 「崔殷舍一承老家門에 관한 研究—新羅六頭品家門의 高麗 門閥貴族化 過程의 一例—」, 『嶺南史學』 2, 嶺南大學校 國史學會, 1986.

## II. 新羅系 政治勢力의 고려 유입

### 1. 敬順王의 歸附와 신라계 정치세력

고려 초기 신라계 정치 세력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신라가 고려에 병합 될 때 경순왕을 따라 개경(開京)으로 귀부할 당시의 신라 지배층들이 각기 어떤 자세로써 이에 대처해 나가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다음은 후삼국의 혼란기에 고려와 신라 간에 나타나는 교섭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고려사」 권1, 세가(世家) 태조(太祖) 연간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료를 정리한 것이다.

- 태조 3년 정월 : 비로소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다(新羅始遣使來聘).
- 태조 3년 10월 : 견훤(甄萱)이 신라를 침공하여 대량(大良), 구사(仇史) 두 군을 탈취하고 진례군(眞禮郡)에 이르렀다. 신라가 아찬 김률(金律)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기 때문에 왕이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였다. 견훤이 그 소식을 듣고 퇴각하였는 바, 이 때부터 그는 우리와 불화하게 되었다(甄萱侵新羅 取大良仇史二郡 至于眞禮郡 新羅遣阿燾金律來求援 王遣兵求之 萱聞之引退 始與我有隙).
- 태조 4년 2월 : 달고은(達古狝) 171명이 신라를 침공하려 가는 도중에 등주(登州)를 통과하였다. 고려 장군 견권(堅權)이 이를 가로막아 크게 격파하여 말 한 필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왕이 명하여 유공자에게 매 사람마다 곡식 50석씩 주게 하였다. 신라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사절을 보내 사의를 표하였다(達古狝 百七十一人 侵新羅 道由登州 將軍堅權 邀擊大敗之 匹馬無還者 命賜有功者 穀人五十石 新羅王聞之喜 遣使來謝).
- 태조 7년 9월 : 신라왕 승영(昇英=景明王)이 죽고 그 아우 위웅(魏膺=景哀王)이 왕위에 올랐다. 신라에서 국상을 알려 왔으므로 왕이 애도하는 의례를 거행하고 재(齋)를 베풀어 명복을 빌었으며 사절을 파견하여 그를 조문하였다(新羅王昇英薨 其弟魏膺立 來告喪 設齋追福 遣使弔之).
- 태조 8년 10월 : 고을부(高鬱府, 지금의 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사졸을 거느리고 와

서 투항하였다. 그 성이 신라 왕도와 가까우므로 노고를 위로하여 돌려 보내고 다만 휘하의 시랑 배근(盍近), 대감 명재(明才), 상술(明才), 궁식(弓式) 등을 남기게 하였다 (高鬱府將軍能文 率士卒來投 以其城近新羅王都 勞慰遣還 唯留麾下侍郎盍近大監明才相述弓式等).

- 태조 8년 10월 :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조물군(曹物郡)에서 견훤과 교전하였는데…인질로 보냈다. 왕은 견훤의 나이가 자기보다 10년 만이라 하여 그를 상부(尙父)라고 불렀다. 신라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절을 파견하여 말하기를 “견훤은 이랬다 저랬다 협잡이 많아 화친할 사람이 못된다”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그럴듯이 여겼다(王自將 及甄萱 戰于曹物郡…交質 以萱十年之長 稱爲尙父 新羅王聞之 遣使曰 萱反復多詐 不可和親 王然之).
- 태조 9년 4월 : 신라왕이 사절을 파견하여 말하기를, “견훤이 맹약을 위반하고 고려에 출병하였으니 하늘이 반드시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만일 대왕이 그를 한 번 반격하면 견훤은 반드시 스스로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사절에게 말하기를, “내가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죄악이 가득 차서 스스로 넘어질 것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新羅王 遣使曰 甄萱違盟舉兵 天必不祐 若大王 奮一鼓之威 萱必自敗 王謂使者曰 吾非畏萱 俟惡盈而自僵耳).
- 태조 10년 정월 : 왕이 친히 백제 용주(龍州)를 쳐서 항복을 받았다.…신라왕이 출병하여 이를 도왔다(親伐百濟龍州降之…新羅王 出兵助之).
- 태조 10년 9월 : 견훤이 근품성(近品城, 지금의 상주)을 공격하여 불태우고 나아가 고을부를 습격하였으며 신라 서울 가까이 육박하였다. 신라왕이 연식(連式)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왕이 시중 공훤(公萱), 대상 손행(孫幸), 정조 연주(聯珠) 등에게 말하기를, “신라가 우리와 친선한 지 오래 되었다. 지금 신라가 위급한 지경에 처하였으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하고 공훤 등에게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이들이 채 도착하기 전에 견훤이 신라 도성에 불의의 침입을 하였다(甄萱攻燒近品城 進襲新羅高鬱府 逼至郊畿 新羅王遣連式告急 王謂侍中公萱大相孫幸正朝聯珠等曰 新羅與我同好已久 今有急 不可不救 遣公萱等 以兵一萬 赴之 未至 萱猝入新羅都城).
- 태조 10년 12월 : 견훤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지난 날 신라 국상 김웅림(金雄廉) 등이 당신을 신라 서울로 불러들이려고 하였는 바…”(甄萱寄書于王曰 昨者新羅國相金雄廉等 將召足下入京).

위에서 보이는 사료는 궁예(弓裔)가 축출된 이후 왕건(王建)의 고려 정부가 성립

되면서 양국간에 왕래하고 교빙(交聘)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군사적 원조와 동맹 관계가 성립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려와 신라는 서로 사신을 교환하고 있으나 신라와 후백제 간에는 서로 공식적으로 사절을 교환한 사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3)</sup> 이는 신라가 후백제를 끝까지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고려에 대한 사신 파견과 교빙의 시작은 신라가 고려를 하나의 국가 또는 패자(覇者)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견훤(甄萱)의 후백제군이 경주(慶州)를 급습하여 경애왕(景哀王)을 죽이고 경순왕을 즉위케 한 후 물러간 사건이 일어났다.<sup>14)</sup> 이로 인하여 신라 왕실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고, 이후의 신라는 더 이상 존왕(尊王)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일개 소국에 불과할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견훤의 신라 왕도(王都) 침입은 신라의 무력함을 만천하에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이 때를 전후하여 신라 조정에서는 친고려적 성향을 지닌 세력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당시 신라의 지배층은 몰락 위기에 처한 신라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새로운 수호자를 모색하였는데, 이 때 고려 태조가 새로운 그들의 주군으로 부각된 듯하며, 이 때부터 고려는 신라에 대해 존왕의 표방과 함께 군사적 원조와 보호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신라의 요청으로 출병하였다가 태조 10년(927) 10월의 공산 전투에서의 참패 후 열세를 면치 못했던 왕건이 태조 12년(929) 12월 고창군(高昌郡) 병산(瓶山) 전투에서의 승리하면서 고려가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高麗史)』는

13)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136.

14) 『三國史記』卷 12, 景哀王 4年(927) 11月 “以冬十一月 掩入王京 王與妃嬪宗戚 遊鮑石亭宴娛 不覺賊兵至 倉猝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 奔走逃竄 其爲賊所虜者 無貴賤皆駭汗匍匐 乞爲奴僕而不免 萱又縱其兵 剽掠公私財物略盡 入處宮闕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數人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盡 強淫王妃 縱其下 亂其妃妾 乃立王之族弟 權知國事 是爲敬順王.” 그런데 『高麗史』에서는 이 사건을 9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15) 『三國史記』11, 新羅本紀 敬順王 9年 10月 “新羅君臣以衰季 難以復興 謀引我太祖 結好爲援.”

16)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p.135~136.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신을 신라에 파견하여 고창군(高昌郡)의 첩보를 알리니 신라왕이 사신을 시켜 답례 방문을 하고 편지를 보내어 서로 만나길 청하였다. 이 때 신라 동쪽의 주군과 부락이 모두 귀부하니, 명주(溟洲, 지금의 강릉)에서 흥례부(興禮府, 지금의 울산)에 이르기까지 110여 성이 되었다(遺使新羅 告高昌之捷 羅王 遣使報聘 致書請相見 是時 新羅以東沿海 州郡部落 皆來抗 自溟洲至興禮府 惣百十餘城 : 『高麗史』卷2, 太祖 13年 2月 乙未).

위 사료는 고창군 전투 승리 이후 그 동안 전세를 관망하던 친고려적 성향을 지닌 세력들이 고려에 무더기로 귀부하는 양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7)</sup>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신라의 지배층들도 경순왕의 고려 귀부에 찬성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경순왕을 따라 개경으로 근거지를 옮겨 고려에 귀부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잠시 경순왕의 고려 귀부 과정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앞으로 신라계 정치 세력의 향방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왕 김부(金傅)의 귀부 과정은 약 5년이란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는 신라의 고려 귀부가 단시일에 또는 국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해 준다. 왜냐하면 귀부자와 귀부 대상 양측의 조건이 어느 정도 합치될 때,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비로소 귀부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귀부에 대하여 『고려사절요』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태수인 겸용(謙用)을 보내 귀순을 고해 왔다(新羅王 遣太守謙用 來告歸順 : 『高麗史 節要』卷1 太祖 14年 春2月 丁酉條).

위 사료에 의하면 신라가 처음으로 귀부 의사를 밝힌 시기를 태조 14년(931) 2월의 일로 적고 있다. 그런데 신라가 처음으로 귀부 의사를 밝힌 931년 2월은 중요한

---

17) 高昌전투 승리후 永安(永川), 河曲(河陽), 直明(安東), 松生(靑松) 등 30여 郡縣과 신라 동부의 溟洲에서 興禮府에 이르는 110여 城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의미를 지닌 시기였다. 즉 이 시기는 “신라 동쪽의 주군(州郡) 부락이 모두 귀부하니, 명주(溟洲)에서 흥례부(興禮府)까지 110여 성이 되었다”라고 한 바와 같이, 930년 정월 왕건이 고창군 전투에서 견훤군에 대승을 거두자 신라 외곽의 호족들이 다투어 고려에 귀부하던 때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는 이미 고려와 후백제 간의 대결 구도가 실질적으로 끝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때 신라에서는 검용을 보내 귀부에 대한 고려측의 입장을 타진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왕건은 자신이 직접 50여 기(騎)를 이끌고 경주를 방문하였다.

다음은 『고려사』에 보이는 태조의 경주 방문 내용이다.

왕이 신라로 갔다. 이날 5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신라 서울 경내에 이르러 장군 선필(善弼)을 먼저 보내어 신라왕의 안부를 물었다. 신라왕이 명령을 내려 백관들은 교외에서 왕을 영접하고 자기 사촌 동생인 김유림(金裕廉)은 성문 밖에서 왕을 영접하게 하였으며 신라왕 자신은 정문 밖에 나와서 왕을 맞으면서 절을 하였다. 왕은 그에게 답례하였다. 신라왕은 왼쪽으로 왕은 오른쪽으로 궁전에 오르면서 서로 앞서기를 사양하였다. 왕이 수원으로 온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신라왕에게 절을 하게 하였다. 이때 회견 식사에는 정분과 예절이 극진하였다(王如新羅 以五十餘騎 至畿內 先遣將軍善弼問起居 羅王 命百官 迎于郊堂 弟相國金裕廉迎 于城門外 羅王出應門外迎拜 王答拜 羅王由左右由揖讓升殿 命扈從諸臣拜羅王 情禮備至 : 『高麗史』 卷2, 太祖 14年 春2月 辛亥條).

이 때 경주를 방문한 왕건은 신라의 王京에 2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무려 93일이나 머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태조와 경순왕 사이에는 양국의 통합에 따른 김부 자신을 비롯한 신라 지배층의 개경 이주 및 그 후의 대우 문제라든지 신라 왕경인(王京人)에 대한 안전과 지위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귀부에 따른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마침내 경순왕의 고려 귀부를 기정 사실화한 후 신라 군신(群臣) 회의를 빌어 신라의 고려 귀부 절차의 수순을 밝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태조가 개경으로 돌아간 후 8월에는 사신을 파견하여 많은 선물을 보낸 바 있는데,<sup>18)</sup> 이는 신라의 귀부 의사에 대한 보

18) 『高麗史』 卷2, 太祖 14年(931) 秋8月 癸丑 “보운 선규 등을 보내어 신라왕에게 안장 갖춘

빙(報聘)의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약 5년 후인 935년 10월 경순왕은 군신 회의에서 귀부 문제를 가결한 후 시랑(侍郎) 김봉휴(金封休)를 개경에 보내어 입조(入朝)를 청했고,<sup>19)</sup> 이에 대한 답례로 고려에서는 섭시중(攝侍中) 왕철(王鐵)과 시랑(侍郎) 한헌옹(韓憲邕) 등을 경주에 보냈다.<sup>20)</sup> 양측에서 보내진 신라의 김봉휴나 고려의 왕철은 모두 왕족으로 추측되는데, 이때에 귀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 등이 협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같은 해 11월 경순왕은 백료(百僚)를 이끌고 개경에 입조하였다. 결국 신라의 귀부는 5년 동안에 여러 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김부가 직접 내조(來朝)함으로써 성사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경순왕의 입조와 관련한 「고려사」에 실린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왕이 백료를 이끌고 왕도(王都)를 출발하였는데 사서(士庶)가 모두 그를 따라나섰다. 향나무로 꾸민 수레와 구슬로 장식한 말이 30여 리에 뻗었고 길은 사람으로 꽉 차서 막혔으며, 구경꾼들이 쪽 둘러 서 있었고, 연도 주현(州縣)에서의 공례(供饋)가 매우 성대하였다(羅王率百僚發王都士庶皆從之香茶寶馬連亘三十餘里道路填咽觀者如堵沿路州縣供億甚盛：「高麗史」卷2, 太祖 18년 11월 甲午條).

여기에서 경순왕이 백료와 가족을 이끌고 재물을 수레에 실어 왕도를 출발할 때,

---

말과 룡라채금을 주고 백관들에게는 채백을, 군민들에게는 차와 복두를, 승려들에게는 차와 향을 차등있게 주었다(遺甫尹善規等遣羅王鞍馬綾羅綵錦并賜百官綵帛軍民茶幘頭僧尼茶香有差).”

19)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敬順王 9年(935) 10월 “9년 겨울 10월, 사방의 국토가 모두 타인의 소유로 되어, 국세가 약하고 고립되었으므로, 왕은 나라를 스스로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러 신하들과 함께 태조에게 항복할 것을 의논하였다. … 곧 시랑 김봉휴로 하여금 태조에게 편지를 보내 항복을 청하였다(九年 冬十月 王以四方土地 盡爲他有 國弱勢孤 不能自安 乃與群下謀 舉土降太祖… 乃使侍郎金封休 齎書請降於太祖).”

20) 「高麗史」 卷2, 太祖 18년(935) 冬10월 壬戌 “신라왕 김부가 시랑 김봉휴를 보내어 입조를 청하자 왕이 섭시중 왕철과 시랑 한헌옹을 신라에 파견하여 신라왕의 요청에 동의하는 뜻을 알렸다(新羅王金傳 遣侍郎金封休請入朝 王遣攝侍中王鐵侍郎韓憲邕等往報).”

가는 곳마다 공대를 받아가며 행진하는 모습에서 망국민으로서의 비애와 절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 새 국사를 지향하는 의지와 도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조와 신라 지배층 사이에 사전에 충분한 협약이 있었고, 귀부한 신라인들의 지위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약속되었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이 때 30여 리의 도로를 짝 메웠다는 수레와 인마의 행렬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말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수만을 헤아리는 신라계 세력의 대규모적인 집단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궁예가 904년에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옮겨온 청주(淸州)의 인호(人戶)가 1,000호에 머물렀던 것에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sup>21)</sup> 또 이들 귀부 신라인들 중에는 지배층뿐만 아니라 사서(士庶)로 불리는 왕경인들도 상당수가 이를 따라 개경으로 유입해 들어왔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당시 신라 왕경의 이주민은 당시 개경의 민호(民戶)의 상당수를 차지할 만큼의 규모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 세력은 개경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신라 관료가 동시에 자연스럽게 고려에 복속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김부를 정승(政丞)으로 임명하여 품위를 태자(太子) 위에 두고 1년 녹봉을 1천 석씩 주었으며 신란궁(新鸞宮)을 지어 이를 하사하였다. 그 종자(從者)들은 전부 등록하여 토지와 녹봉을 넉넉히 주었으며 신라국은 폐지하여 경주로 고치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주어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였다(拜金傅爲政丞 位太子上 世給祿千碩 創新鸞宮賜之 其從者並收錄 優賜田祿 除新羅爲慶州 仍賜爲食邑 : 『高麗史』卷2, 太祖 18年 12月 壬申條).

위 사료는 태조가 귀순해 온 경순왕 김부를 자신의 장녀인 낙랑공주(樂浪公主)와 혼인시키고 정승공(正承公)에 봉하여 그의 지위를 태자보다 위에 두었으며 경주를 식읍으로 지급하고 사심관에 임명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21)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142.

다. 뿐만 아니라 태조는 경순왕을 따라온 옛 신라 관료들을 모두 고려의 관료로 흡수하려 하였다. 위 사료에서 보이는 종자란 단순히 김부의 시종(侍從)이기보다는 경순왕을 따라 개경으로 옮겨온 백료, 즉 신라의 귀족 관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에게 토지와 녹봉(祿俸)을 넉넉히 주었다는 것은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일회에 그치는 포상이 아니라 관료로서의 신분 보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시종하던 관원과 장수들을 모두 등용하였다(侍從員將 皆錄用之 : 「三國遺事」卷2 金博大王條).

위 사료에서 그들이 수록되어 전록(田祿)을 받았다는 것은 곧 고려 관인(官人)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태조가 귀부 신라인들을 등용하게 된 이유는 고려가 옛 신라의 영토와 인구 기반을 그대로 인수하게 됨에 따라 그것을 활용할 관료 세력이 대거로 필요했던 점이 고려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2)</sup> 이를 미루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신라 관료가 경순왕의 귀부와 동시에 고려에 흡수되어 뿌리를 내려 태조대 관직자 집단에 광범위하게 포진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한편 고려에의 귀부를 반대하였던 신라계 반귀부(反歸附)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복벽운동(復辟運動)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 시랑 김봉휴(金封休)로 하여금 태조에게 편지를 보내 항복을 청하였다. 왕자는 통곡하면서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산길을 따라 개골산(皆骨山)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위 아래에 집을 짓고, 삼베옷을 입고 풀잎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乃使侍郎金封休齋書請降於太祖 王子哭泣辭王 徑歸皆骨山 倚巖爲屋 麻衣草食 以終其身 :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敬順王 9年 10月條).

22) 여기서 잠시 태조대 관직자 임용기준을 살펴보면, 태조 推戴의 功과 行政實務 능력이 중시되었다(邊太燮, 「高麗初期의 政治制度」,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p.162).

◦ 태자는 울면서 왕을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으로…세상을 마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막내는 머리를 깎고 화엄종(華嚴宗)에 들어가 중이 되어 이름을 범공(梵空)이라 하더니 후에 법수사(法水寺)와 해인사(海印寺)에 있었다 한다(王子哭泣辭王 徑往皆骨山…以終其身 季子祝髮隸華嚴 爲浮圖名梵空後住法水海印寺云：「三國遺事」卷2, 金傳大王條).

위 사료에서는 신라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웠던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설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경순왕 김부를 비롯한 대다수의 신라 지배층이 고려에 귀부한 상황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고려에 집단 이주한 신라 왕경(王京)의 지배층은 전록(田祿)을 받고 수록되어 개경의 주요 구성원을 형성하였으며, 경순왕을 비롯하여 양국 통합에 공헌한 인물들은 일정한 지위를 얻고 고려 지배층에 편입되었다. 이들 세력이 고려 개경에 거주하면서 지배층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고려 관료 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후일 안정된 고려 사회에서 신라계 인물들이 정치 세력화하게 되는 인적 기반이 형성되는 배경이 된 것이다.

## 2. 신라계 정치 세력의 존재 양상

지금까지 고려에 귀부한 신라계 세력이 비록 자신의 국가는 소멸되었지만 고려의 왕도인 개경에서 일정한 지위와 특권을 확보하면서 고려의 정치 사회에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경순왕(敬順王)을 따라 귀부한 개경내의 신라계 세력 중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의 동향과 실태를 먼저 보기로 하자.

경순왕 김부는 귀부 신라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예우는 고려 조정에 귀부한 신라계 세력의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김부는 고려에 입조한 후 태조의 극진한 예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태조는 귀부해 온 경순왕을 정승공으로 봉하고 그 지위를 태자보다 위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경주를 식읍으로 지급하고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태조는 의도적으로 옛 신라 왕실과의 정략적인 혼인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료를 살펴보자.

- 11월, 태조가 왕의 편지를 받고, 대상 왕철(王鐵) 등을 보내 왕을 영접하게 하였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여 태조에게 가는데… 태조가 교외에 나와서 왕을 영접하여 위로하였으며, 왕궁 동쪽의 가장 좋은 구역을 주고, 딸인 낙랑공주(樂浪公主)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太祖受王書 送大相王鐵等迎之 王率百僚 發自王都…太祖出郊迎勞 賜宮東甲第一區 以長女樂浪公主妻之 :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 敬順王 9年 11月條).

- 왕이 정전(正殿)에 나와서 백관을 모아 놓고 의례를 갖추어 왕의 딸인 낙랑공주를 신라왕에게 시집을 보냈다(御正殿 會百官備禮 以長女樂浪公主 歸于羅王 : 『高麗史』 卷2, 太祖 18年 11月 癸丑條).

- 안정숙의공주(安貞淑儀公主)는 신명왕태후(神明王太后) 유씨(劉氏)의 소생이다. 신라왕 김부가 입조하자 공주를 그에게 시집보내고 낙랑공주 또는 신란궁부인(神鸞宮夫人)이라 칭하였다(安貞淑儀公主神明王太后劉氏所生 新羅王金傳入朝 以公主歸之 稱樂浪公主 一云神鸞宮夫人 : 『高麗史』 卷91 公主傳 太祖條).

- 처음 신라가 항복하였을 때, 태조가 매우 기뻐하여 후한 예로 대우하였고, 사자를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왕이 나에게 나라를 주었으니, 이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원컨대 저의 종실과 혼인하여, 영원히 집안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나의 백부 잡간(匝干) 억렴(億廉)이 지대야군사(知大耶郡事)로 있는데, 그의 딸이 덕행이 훌륭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이 외에는 집안을 받들 만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태조가 마침내 그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初新羅之降也 太祖其(甚)喜 既待之以厚禮 使告曰 今王以國與寡人 其爲賜大矣 願結婚於宗室 以永甥舅之好 答曰 我伯父億廉匝干 知大耶郡事 其女子德容雙美 非是 無以備內政 太祖遂取之生子 :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 敬順王 9年 12月條).

- 공주는 사기에 그 칭호가 전하지 않으나 성무부인(聖茂夫人) 박씨(朴氏)의 소생인 바 김부에게 시집갔다(公主史失其號 聖茂夫人朴氏所生 適金傳 : 『高麗史』 卷91 公主傳 太祖條).

위의 사료를 살펴볼 때, 경순왕이 개경에 들어오자 태조의 경우는 자신의 장녀인

낙랑공주를 경순왕에게 출가시켰는데, 이때 정전(正殿)에서 백관을 모아놓고 예를 갖추어 공식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외에도 태조는 정략적으로 경순왕의 백부인 지대야군사 김억렴(金億廉)의 딸과 혼인을 하였으며, 이어서 성무부인 박씨와의 소생을 또 다시 김부에 시집을 보냄으로써 구신라 왕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태조가 신라 왕실과의 혼인을 서두른 것은, 비록 신라의 골품 제도가 붕괴되었다고는 하나 신분적으로 변방의 지방 호족 출신으로서 즉위한 태조가 신라 병합 이후 경순왕을 따르는 신라의 귀족들을 압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권위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sup>23)</sup> 그 결과 양국 왕실은 서로 혼인을 주고 받게 되었고 명실공히 양국간의 완전한 상징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신라 왕 김부는 고려 왕실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는 건국 당시에는 서북 지역의 반신라적 경향을 흡수하기 위하여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 여기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라 함은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갖는 귀소(歸巢) 의식을 염두에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즉 평양(平壤)이 옛 고구려의 수도였다는 점과 태조 이후 서경(西京) 경영에 힘을 기울여 고려 역대왕의 서경 순행(巡幸)이 잦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sup>25)</sup> 그러나 앞서 언급한 태조의 귀부 신라인들에 대한 우대 정책과 신라 왕실과의 혼인을 적극 추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태조가 점차 오랜 국가적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신라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sup>26)</sup>

23) 河炫綱, 앞의 논문, 1977, pp.53~54.

24)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하여 北進政策이나 西京 經營이 곧 고구려 계승의식이요 자주적이고 복진적인 의미가 있으며, 한편으로 顯宗의 金氏出自說이 곧 신라 계승의식이요, 문약하고 현실 타협적이며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논리의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申濬植, 「高麗前期의 歷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研究』, 乙酉文化社, 1985, pp.37~65 및 李在範, 앞의 논문, 1995, pp.474~478).

25) 秦榮一, 앞의 논문, 1987, pp.198~205.

26) 이 혼인으로 인하여 고려의 國統意識이 고구려 계승에서 신라 후계라는 형태로 전환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鄭容淑,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사, 1988, pp.72~73).

다음으로 신라의 진골 출신으로서 고려초에 활동한 인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김일(金鎰)은 신라 진골 귀족인데, 신라 귀부시 경순왕과 함께 개경으로 옮겨와 활동하였다.<sup>27)</sup> 혜종(惠宗) 원년에 건립된 흥녕사 징효대사 비문(興寧寺澄曉大師碑文)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자.

英章大匡 王景大承…金鎰蘇判 兢達蘇判 王規左承…金奐阿浪…寬質韓浪…兢鎰海浪…  
允逢正甫…<sup>28)</sup>

위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堯=정종), 소(昭=광종) 및 왕경(王景), 궁달(兢達), 왕규(王規), 권설(權說), 왕렴(王廉) 등 당시 일급의 인물들과 함께 단월(檀越)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의 그의 위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듯하다.<sup>29)</sup>

원성왕(元聖王)의 후예인 김례(金禮)와 김인윤(金仁允) 부자의 가문도 주목된다. 『김지우묘지명(金之祐墓誌銘)』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자.

그는 신라국 원성왕의 후예였다…처음에 공신 인윤은 태조에 벼슬하여 삼국 통합에 공을 세워 태조를 따라 개경에 들어온 집안이다(其先新羅國元聖大王之後…初功臣仁允仕太祖 統合三國有功 隨太祖入京家焉).<sup>30)</sup>

위 사료에서 삼한공신(三韓功臣)이며 삼중대광(三重大匡)의 관계(官階)를 가지고 나타나는 김인윤은 원성왕(元聖王)의 후손으로서 삼국 통합에 공을 세우고 태조를 따라 개경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태조를 섬겨 공신이 되었던 그는 아버지인 대광(大匡) 김례(金禮)와 함께 고려와 신라의 통합에 적극 협조하였던 인물일 것이며 그의 후손은 김인위(金因渭)에 이르러 고려의 명문을 이루었다.<sup>31)</sup>

27) 李鍾旭, 「高麗初 940年代의 王位繼承戰과 그 政治的 性格」,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97.

28) 黃壽榮 編,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p.105.

29) 진골 출신으로서 고려초에 활약한 인물에 대해서는 全基雄의 앞의 논문, 1993, pp.145~146 참조.

30) 李蘭暎 編, 「金之祐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中央大學校出版部, 1968, pp.131~132.

31) 金蓮玉, 「高麗時代 慶州金氏의 家系」, 『淑大史論』 11·12 합집, 1982. pp.237~241.

다음은 김유렴(金裕廉)에 대한 『고려사』에 수록된 내용이다.

◦ 왕이 신라로 갔다. 이날 50여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신라 서울 경내에 이르러 장군 선필(善弼)을 먼저 보내어 신라왕의 안부를 물었다. 신라왕이 명령을 내려 백관들은 교외에서 왕을 영접하고 자기 사촌 동생인 김유렴(金裕廉)은 성문 밖에서 왕을 영접하게 하였으며 신라왕 자신은 정문 밖에 나와서 왕을 맞으면서 절을 하였다(王如新羅以五十餘騎至畿內先遣將軍善弼問起居羅王命百官迎于郊堂弟相國金裕廉迎于城門外羅王出應門外迎拜王答拜：『高麗史』卷2, 太祖 14年 春2月 辛亥).

◦ 왕이 신라왕, 그의 태후, 죽방부인(竹房夫人), 상국(相國) 유렴(裕廉), 잡간(庶干) 예문(禮文), 파진찬(波珍粢) 책궁(策宮), 윤유(尹儒), 한찬(韓粢) 책직(策直), 혼직(昕直), 의경(義卿), 양여(讓餘), 관봉(寬封), 함의(含宜), 희길(熙吉) 등에게 물품을 차등있게 주었다. 계미일에 왕이 돌아 오는데 신라왕이 혈성(穴城)까지 나와서 전송하고 유렴(裕廉)을 인질로 삼아 왕을 수종케 하였다(王遣新羅王太后竹房夫人與相國裕廉庶干禮文波珍粢策宮尹儒韓粢策直昕直義卿讓餘寬封含宜熙吉等物有差癸未王還羅王送至穴城以裕廉爲質而從：『高麗史』卷2, 太祖 14年 夏5月 丁丑條).

◦ 김한충(金漢忠)은 신라의 대보(大輔)인 알지(閼智)의 후손인데 고조 유렴(庾廉)은 경순왕을 따라 태조에 귀부하여 공신이 되었다(金漢忠新羅大輔閼智之後高祖庾廉從敬順王歸太祖爲功臣：『高麗史』卷95 列傳 金漢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유렴은 경순왕의 당제(當弟)이며 신라의 상국(相國)으로서 태조의 경주 방문시 성문 밖에 나와 영접을 하였으며, 태조가 귀환할 때에는 인질이 되어 태조와 함께 개경으로 갔던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그는 개경에 머물면서 양국 통합의 준비 작업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는 훗날 예종(睿宗) 때 활약한 김한충의 고조(高祖)이며, 태조에게 귀부하여 공신이 되었다고 하는 김유렴(金庾廉)은 바로 김유렴(金裕廉)과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 왕실과의 혼인을 통하여 외척이 되거나 전통적 신분의 우위를 활용하여 고려의 고위 지배층으로 편입되는 인물도 있었다. 먼저 신라 출신으로 고려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인물로는 신라 왕족으로 앞서 말한 김부와 김억렴이 있으며, 6두품 출신으로는 태조의 11비 천안부원부인(天安府院夫人) 임씨(林氏)의 비부(妃父)인 태수 임언(林彦),<sup>32)</sup> 그리고 출신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왕경의 사서(士庶)에

해당하는 인물로 보이는 평준(平俊)과 연예(連乂)는 각각 태조와 혜종에게 납비(納妃)하였다.

태조의 제7비 헌목대부인(獻穆大夫人) 평씨(平氏)의 비부(妃父)인 평준(平俊)은 경주사람으로서 좌윤(佐尹)의 관계(官階)를 갖고 있었다. 평씨(平氏)의 성(姓)이 착오가 아니라면 그는 왕족 또는 진골 귀족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평씨와의 혼인은 태조 14년 신라 왕경(王京)을 방문하였을 때 시침(侍寢)의 형식으로 맺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며,<sup>33)</sup> 혹은 신라 귀부 후 귀부 신라인들의 포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느 쪽이건 평준은 왕건과 밀착되는 친고려적 성향의 인물로서 김부와 함께 개경에 이주한 왕경의 사서(士庶)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신라의 귀족이 아닌 그가 좌윤(佐尹)의 관계를 얻고 태조의 비부가 되었던 것은 흥미롭다.

혜종의 제4비인 궁인(宮人) 애이주(哀伊主)의 아버지인 연예(連乂)는 경주인(慶州人) 대간(大干)이다. 그는 성(姓)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의 딸인 애이주(哀伊主)가 1남 1녀의 소생을 두었음에도 정식 왕비가 되지 못하고 궁인(宮人)으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분으로나 세력이 미약한 인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를 대간(大干)으로 표기하고는 있지만 이는 신라의 관등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적인 존칭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왕경의 귀족 관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실과 혼인을 맺고 있다는 점은 왕경인(王京人) 사서(士庶)들의 진출이 무시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sup>34)</sup>

한편 신라계 6두품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관료 출신들은 보다 우수한 학문과 문장력, 중앙 관료로서의 경험과 자질을 바탕으로 고려 정부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그러면 태조대의 관직자 집단 중에서 신라의 관료였거나 6두품 출신의 인물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삼한공신들 중 경순왕을 따라 태조에 귀순했던 신

32) 李樹健은 그의 논문에서 林彦을 6두품 출신으로 보고 있다(李樹健, 「後三國時代 支配勢力의 姓貫分析」, 『大邱史學』 10집, 1976, p.26). 林彦은 金傳와 함께 귀부하지는 않았으나 天安府院夫人 林氏의 아들인 天安府元郎君이 景宗 초에 執政 王誥에 의해 교살 당한 사건(『高麗史』 卷2, 景宗 원년 11월조)은 王誥의 퇴임을 불러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33) 鄭容淑, 앞의 책, 1988. p.69.

34)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p.147~148.

라 지배층도 포함되어 있다.

태조는 아직 통치 체제가 미비된 상태에서 각종 제도와 문물의 정비에 있어 종래의 무적(武的)인 요소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신라로부터 신라의 인구와 영토 기반을 고스란히 인수받아 이를 고려의 통치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순왕이 귀부시 가져온 각종 군현에 대한 자료와 조세공부(租稅貢賦)<sup>35)</sup>를 재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업무에 능한 다수의 인재가 필요했다. 이것이 신라계 6두품 세력이 태조대 고려에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최대의 무기였던 것이다.

그들은 옛 신라에서 국정 운영의 경험을 지닌 인물로서 고려 건국 초기의 부족한 인재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견 관료로 대거 임용되었다고 믿어지는 세력이다. 그 중에서 일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승로(崔承老)의 경우를 살펴보자.

- 신라 말년 천성(天成) 연간(926~929)에 정보(正甫) 최은함(崔殷誠)이...은함(殷誠)은 경순왕을 따라 本朝(고려)로 들어와 대성(大姓)이 되었다(羅季天成中 正甫崔殷誠...殷誠隨敬順王 入本朝爲大姓 : 『三國遺事』卷3, 三所觀音 衆生寺條).<sup>36)</sup>
- 최승로는 경주인(慶州人)이니, 아버지 은함(殷舍)은 신라에 벼슬하여 원보(元甫)에 이르렀는데, ...나이 12세 때 태조가 불러 보아 논어를 읽어보게 하고는 심히 가상하게 여겨 염분(鹽盆)을 내려 주었다. 명하여 원봉성(元鳳省) 학생에 속하게 하여 안마(鞍馬)와 예식(例食) 20석을 하사하니 이로부터 문병(文柄)을 위임하였다. 성종 원년에 정광(正匡) 행선관어사상주국(行選官御事上柱國)이 되었다(崔承老 慶州人 父殷舍仕新羅 至元甫...年十二 太祖召見 使讀論語 甚嘉之 賜鹽盆 命隸元鳳省學生 賜鞍馬 例食二十碩 自是 委以文柄 : 『高麗史』卷93, 列傳, 崔承老傳).

위의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승로 가문은 태조의 치세 동안에 신왕조 고려의 성립 과정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고려 초기부터 관료군에 편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최승로 가문은 개경에 온 후 이미 대성으로 성장하였는데, 그후 최

35) 『三國遺事』卷2, 奇異 金傅大王 “封府庫 籍郡縣 以歸之 其有功朝政.”

36) 여기서 殷誠은 崔承老의 父 殷念의 誤記일 것으로 생각된다(金皓東, 「崔殷舍—承勞家門에 관한 研究」, 『嶠南史學』2, 1986).

승로 가문은 최은함(元甫)—최승로(성종조 侍中)—최숙(崔肅, 侍中)—최제안(崔齊顔, 문종조 侍中)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종묘배향공신(宗廟配享功臣)으로서의 영달을 누렸다.<sup>37)</sup> 이것이 최승로가 후일 오조정적평(五朝政績評)과 시무28조에서 전체 신라계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지 않았던 이유가 아닌가 한다.<sup>38)</sup>

김악(金岳)은 태조 13년 이전에는 신라의 관직자였다가 후백제에 종사(從士)하던 중 태조 13년 고창군에서 태조의 친정군(親征軍)에 생포된 자이다.<sup>39)</sup>

(왕이) 병이 더욱 심해지므로 신덕전(神德殿)에 나아가 학사 김악(金岳)에게 유조(遺詔)를 초(草)하게 하였다. …상정전(詳政殿)에서 상(喪)을 발(發)하고 김악이 유조를 선포하였다(疾大漸御新德殿命學士金岳草遺詔文成王不復語 : 『高麗史』 권2 太祖 26年 5月 丙午條 및 『高麗史節要』 卷1 太祖 26年 6月 戊申條).

위의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는 태조 26년에 학사(學士)의 관직을 지니면서 태조의 유조(遺詔) 작성과 그 선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최언위(崔彦擿)에 대하여 살펴보자. 태조는 경순왕이 귀부할 때 시종한 관료를 녹용(錄用)하고 그들에게 전록(田祿)을 내려 준 바 있는데, 최언위도 이 무렵에 고려에 귀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0)</sup>

최언위(崔彦擿)는 初名이 신지(愼之)이고 경주 사람이다. … 신라말에 나이 18세로 당(唐)에 들어가 … 나이 42세에 비로소 신라로 돌아오니 집사성(執事省) 시랑(侍郎) 서서원학사(瑞書院學士)를 제수하였다. 태조의 개국에 이르러 가족을 거느리고 오니 명하여 태자사부(太子師傅)로 삼아 문한(文翰)의任을 맡기매 궁원(宮院)의 액호(額號)

37) 金皓東, 앞의 논문, 1986, pp.21~22.

『高麗史』 券93, 崔承老傳과 崔承老 附 齊顔傳.

38) 黃善榮, 앞의 논문, 1993, p.122.

39)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中世的 側近政治의 志向」, 『歷史學報』 77, 1978, p.51.

40) 崔彦擿의 귀부는 太祖가 開國할 무렵이 아닌 敬順王이 귀부한 太祖 18년(935년) 또는 그 이후였다(李基東, 앞의 논문, 1978, p.51. 및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149).

가 모두 그가 선정한 바이며, 한때의 귀유(貴遊)가 모두 그에게 사사(師事)하였다. 벼슬이 대상(大相) 원봉대학사한림원령(元鳳大學士翰林院令)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崔彥攝初名愼之慶州人…新羅末年十八遊學入唐…年四十二始還新羅 拜執事省侍郎瑞書院學士及太祖開國家而來 命爲太子師傅 委以文翰之任 宮院額號 開所撰定 一時貴遊皆歸事之 官至大相元鳳大學士翰林院令平章事 : 『高麗史』卷93, 列傳, 崔彥攝傳).

위 사료에서 최언위가 혜종의 사부였다는 사실과 그의 관록은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보여 주었던 정치적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며, 여기서 태자 무(武)의 스승과 신하들 중에는 많은 구신라 귀족들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41)</sup> 최언위 가문은 아들인 최광윤(崔光胤)이 빈공진사(賓貢進士)로 진(晉)에 유학하였고, 최행귀(崔行歸)는 오월(吳越)에 유학하고 돌아와 광종의 행신(幸臣)이 되었으며, 최광원(崔光遠)은 광종대에 비서소감(秘書少監)을 지냈는데 광원의 아들인 최항(崔沆)은 성종대에 급제하여 평장사(平章事)를 지내는 등<sup>42)</sup> 문한(文翰)을 통한 고려의 명문가로 성장하였다.

이들 중에서 최언위와 최승로는 김약의 경우와는 달리 신라가 병합된 태조 18년 이후에 비로소 고려의 관직자가 되었는데, 이는 6두품 출신 지식인의 학문적, 행정 실무적 능력에 바탕을 둔 정치적 진출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한편 6두품으로 여겨지는 태수(太守) 이금서(李金書)는 경순왕을 따라와 삼한공신이 되었는데, 경순왕과 낙랑공주 사이에서 낳은 딸과 혼인함으로써 경순왕의 사위가 된 인물이다.<sup>43)</sup> 그리고 활동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태조의 왕경 방문시 물품을 선사 받았던 예문(禮文), 윤유(尹儒) 등과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김률(金律), 연식(連式), 겸용(謙用), 김봉휴(金封休) 등은 고려와의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인물로서 역시 경순왕과 함께 개경에 이주하여 활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인물들이 신라의 관료이거나 6두품 출신으로 태조대에 고려의 관직자로 편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처럼 고려의 관료군에 편입된 신라 계통의 인물로서 확인된 자들은 대체적으로

41) 姜喜雄, 「高麗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7, 一志社, 1977, p.79, 註44.

42) 『高麗史』 卷92, 崔彥攝傳.

43) 『東文選』 卷126, 李齊賢墓誌銘.

신라의 관료였거나 6두품 출신이었다. 6두품 출신은 신라에서 정치적·사회적 제약을 받았던 계층이면서도 최언위와 최승로처럼 학문과 문예에 대한 소양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지방 문사 출신의 관직자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국가의 지배 조직을 운용해 본 경험의 소지자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태조대의 관직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상권에 수록된 다음의 사료를 검토해 보자.

- 臣李奐相 □□□書并篆額(937, 廣照寺 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
- 門人 正朝上柱國 賜丹金魚袋 臣李桓樞(939, 菩提寺 大鏡大師玄機塔碑)
- □□□□兵部大監 上柱國 賜丹金魚袋 臣李桓樞 奉教書并篆額(939, 毘盧庵 眞空大師普法塔碑)
- 沙滄 檢校興文監卿 元鳳省待詔 臣仇足達 奉教書(940, 地藏禪院 朗院大師悟眞塔碑)
- 沙榮 前守興文監卿 緋銀魚袋 臣具足達 奉教書(943,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 崔潤 奉教書並篆□(944,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
- 正朝□□評侍郎柱國 賜丹金魚袋 柳勳律 奉教書(946, 無爲寺 先覺大師遍光塔碑)
- 臣崔光胤 奉教集太宗文皇(940, 興法寺 眞空大師塔碑)
- 太相 前守禮賓令 元鳳令兼知制誥 上柱國 賜紫金魚袋 臣孫紹 奉教撰(950, 大安寺 廣慈大師碑)

위의 비문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최언위와 함께 선사비문(禪師碑文)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기웅은 이들을 신라 출신의 문인으로 간주하여 이환상(李奐相), 최윤(崔潤), 이환추(李桓樞), 구족달(具足達), 유훈률(柳勳律), 최광운(崔光胤), 손소(孫紹) 등도 신라 계열에 속하는 대표적 인물들로 보고 있다.<sup>44)</sup> 이들이 고려의 관료로 편입되는 시기는 신라가 고려에 병합되기 이전부터였을 것이며, 병합 이후에는 그 추세가 더욱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고려와의 충돌을 피한 채 지배층이 온전한 상태로 개경에 이주하였던 신라의 귀부는 신라계 세력이 고려의 정치적 지배 세력으로 대두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신라 출신의 6두품 지식인들은 자신의 문장과 학문, 그리고 관료로서의 행정

44)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p.150~151.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 정부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과 지식으로 고려 정부의 관료로서 정착하고 후일 서북 지역 출신의 문사들과 함께 문신관료층의 주축을 형성하였다.

이렇듯이 경순왕과 더불어 귀부한 신라 지배층은 고려 조정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후 고려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적으로 동일한 처지에 설 경우도 많았다.<sup>45)</sup> 이렇게 태조대를 거치면서 광범위하게 고려 관료 사회에 포진하고 있었던 신라계 정치 세력은 혜종, 정종대를 거쳐 초기의 혼란이 안정되고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광종 이후 고려의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 Ⅲ. 新羅系 政治勢力의 內在的 成長



#### 1. 고려 초기의 왕위 계승과 신라계 정치세력

지금까지 신라 출신 인물들이 고려에 귀부하는 과정과 귀부 이후 존재 양상을 통하여 신라계 정치 세력이 고려 정치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필자는 고려의 정치 사회에 안착한 신라계 정치 세력이 고려 초기의 권력 구조 속에서 왕위 계승 문제에 어떻게 기능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태조에 이어 혜종, 정종(定宗)이 즉위했으나 아직 왕실의 기반은 미약하였다. 혜·정종대에 들어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변에 휩싸여 마침내 그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당시 태조의 왕자들에 의한 왕위 계승은 단순한 왕위 계승 그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당시의 정계 재편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했던 것으로 보여

45) 盧鏞弼, 「光宗 末年 太子 卬의 政治的 役割」, 『震檀學報』 68, 1989, p.6, 註17.

진다.<sup>46)</sup> 이와 관련하여 최승로의 다음 상서문(上書文)의 내용이 주목된다.

정종은 여러 신하들에게 추대되어 왕위를 계승하였는 바, 임종할 때에 또한 광종(光宗)에게 전위(傳位)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종과 경종(景宗)의 유언은 현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을 보건대 혜종, 정종, 광종의 세 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초기 모든 일이 안녕하지 못한 때에 양경(兩京) 문무반의 절반이 이미 살상되었습니다(定宗自被群臣翊戴 以纂大業臨終亦早傳位光宗 以安宗社 定景二宗之遺命 可謂明矣 又曾見惠定光三宗 相繼之初 百事未寧之際 兩京文武 半以殺傷 : 『高麗史』 卷93, 列傳 崔承老傳).

위의 사료는 고려 초에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정국이 불안정하였으며, 그 결과 양경의 문무 관리 상당수가 살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록 소(昭=광종)가 정종의 전위(傳位)로 즉위는 했지만 아직도 고려 초의 왕위 계승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왕위 계승전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신라계 정치 세력은 꾸준히 부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귀부한 옛 신라 관료들이 광종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는지는 사료의 미비로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고려조에 편입되어 이미 훈구세력화(勳舊勢力化)한 경우도 있겠지만,<sup>47)</sup> 나머지 대부분은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된 채 옛 신라의 전문 관료로서의 전통과 능력을 바탕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고려 초기 신라계 정치 세력이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혜종대에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나타난 신라계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자. 혜종대에 벌어진 왕위 계승 관련 세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박술희(朴述熙)의 지원을 받던 혜종(興化郎君 포함) 세력, 광주원군(廣州院君)을 왕으로 삼으려는 왕규(王規) 세력, 그리고 혜종의 이모 동생인 요(堯, 왕식렴의 지원을 받음)·소(昭) 세력

46) 李鍾旭, 앞의 논문, 1997.

47) 金皓東, 앞의 논문, 1986, pp.21~22 및 黃善榮, 앞의 논문, 1993, p.122.

등 3과전 양상으로 보고 있다.<sup>48)</sup>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왕위 계승전에 참여한 개인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다.

여기서 필자는 강희웅씨의 연구를 주목하였다.<sup>49)</sup> 그는 945년 혜종에서 정종으로 왕위가 넘어간 것이 신라 계열의 중앙 구귀족과 비신라 계열의 신진세력간에 오랫동안 쌓였던 모순이 표면화한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무(武)를 태자로 세운 이유는 그의 외가가 왕건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같았기 때문이며, 그의 책봉에 반대한 세력은 신라 귀족 출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해상 세력을 가진 박술희(朴述熙)는 신라 귀족 가문 후손으로 무(武)를 지지하여 무의 반대파를 침묵시킨 후 서경(西京)으로 이주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945년 이 두 세력이 무력 대립을 하여 양경(兩京)의 집권층 중 거의 절반이 희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왕규는 비신라 귀족계이며, 왕자 요(堯)와 소(昭)는 외가로 보아 구신라계 귀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였다. 신라 귀족 출신인 박수경(朴守卿)의 경우 이들을 지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여기서 왕규(王規)와 요(堯)·소(昭)의 대립도 두 세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주장하였다. 945년 왕위 계승란 이후 신라 말기에 대두된 신진 세력인 비신라 귀족계가 새 왕조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이 때문에 통치 계급의 사회 범주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강희웅씨의 연구는 혜종대의 왕위 계승란을 정치·사회·경제적인 여러 요인과 함께 관련시켜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박술희를 무(武)를 지지한 신라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sup>50)</sup> 요(堯)와 소(昭)는 외가로 보아 역시 구신라 계열로, 왕규는 비신라 계열로 구분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이들 두 세력간의 대립이 왕위계승란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는 혜종대 신라계 정치 세력의 동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혜종은 태조 4년(921)에 태자로 책봉된 후 20년간 동궁(東宮)으로 머물다가 태조 26년(943)에 가서야 즉위하였다. 그의 외가인 나주(羅州) 오씨(吳氏) 세력이 '측미(側

---

48) 李鍾旭, 앞의 논문, 1997, p.3.

49) 姜喜雄, 앞의 논문, 1977, pp.62~91.

50) 朴述熙를 新羅系 海上·軍鎮勢力으로 보는 견해(姜喜雄, 앞의 논문, 1977, pp.75~76) 이외에도 地方豪族出身으로 보는 견해(李鍾旭, 앞의 논문, 1997, p.7)도 있다.

微)하다는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sup>51)</sup> 왕건이 무(武)를 태자로 책봉하게 된 것은,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혜성군(樞城郡, 현 충남 면천) 출신인 박술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술희가 무의 태자 책봉이나 즉위 시에 이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신라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서 전 신라 귀족들의 불만을 봉쇄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혜종 당시의 최언위를 통하여 신라계 세력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 최언위는…태조의 개국에 이르러 가족을 거느리고 오니 명하여 태자사부(太子師傅)로 삼아 문한(文翰)의 직임을 맡겼다.(崔彦攝…及太祖開國家而來 命爲太子師傅 委以文翰之任 : 『高麗史』 卷93, 列傳, 崔彦攝).
- 혜종은 오랫동안 태자로 계시면서 누차 감국(監國)의 직무를 맡아 보았으며 스승을 존경하고 빈객과 속료들을 잘 대우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명성이 조야에 알려졌으며 처음 즉위하였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였습니다(惠宗久在東宮 累經監撫 尊禮師傅善接賓僚 由是令名聞於朝野 及初卽位 衆舉欣然 : 『高麗史』 卷93, 列傳, 崔承老).

위 사료에서 최언위가 혜종의 사부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 6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고려 초에 보이는 정치적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는 또 태자 무(武)가 평소 존경하고 잘 대우했던 스승과 신하들 대부분이 주로 신라계 세력이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무는 태자로 책봉된 후, 태자비로 병부령(兵部令) 임희(林曦)의 딸인 의화왕후(義和王后)와 혼인하였으며, 연이어 광주(廣州) 출신 왕규(王規)의 딸인 후광주원부인(後廣州院夫人), 청주(淸州) 원보(元甫) 김경률(金競律)의 딸인 청주원부인(淸州院夫人), 경주(慶州) 대간(大千) 연예(連義)의 딸인 궁인 애이주 등과 혼인하였다.<sup>52)</sup> 여기

51) 혜종의 어머니인 莊和王后 吳氏의 가계가 微賤하다고 한 것은 신분상의 미천이 아니라 태조의 지지세력이 포진해 있는 중앙 정계에서의 세력기반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태조의 지지세력이며 고구려 회귀를 주장하는 송악 일대에서의 세력기반이 미약했다는 뜻으로 보인다(李在範, 앞의 논문, 1995, p.495).

52) 『高麗史』 卷88 后妃傳 1.

서 청주원부인과 궁인 에이주가 신라계라는 점이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신라계 정치 세력에게 그들 세력을 부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건으로 요(堯=정종)·소(昭=광종) 형제가 왕위 계승전에서 승리한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종 즉위 후 재위 8년(957) 쌍기(雙冀)가 중용되기 이전까지는 신라계 세력으로서도 그들의 정치적 권세를 급속히 부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듯하다.

그 예로써 먼저 이와 관련한 광종 초년의 친신라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최승로의 상서문에 나타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즉위한 해로부터 8년간 정치와 교화가 맑고 공평하였고 형벌과 표창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自卽位之年至于八載 政教淸平 刑償不濫 : 『高麗史』卷93, 列傳 崔承老).

위의 사료에서 최승로가 광종 8년까지의 정치를 중국의 삼대(三代)에 비견하며 가히 볼 것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신라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던 최승로가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된 배경은 광종이 정관정요(貞觀政要)<sup>53)</sup>를 탐독하는 등 유교 사상에 입각한 중앙 집권적 정치이념에 관심을 보이면서 유교적 문신관료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었다.<sup>54)</sup> 또한 광종은 학문과 문예에 대한 소양을 지닌 기존의 학사 집단에게 내의령(內議令), 내봉령(內奉令), 병부령(兵部令) 등의 최고위 관직을 겸임케 하면서 이들을 정국 운영의 주도 세력으로 삼았는데,<sup>55)</sup> 이는 신라 6두품 계열의 유학자들로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는 즉 광종

53) 貞觀政要是 唐 吳兢이 편찬한 책이다. 그 내용은 唐太宗이 신하들과 정치에 관해 논의한 것을 모두 40여 편으로 분류하였는데, 창업 이후 개국공신들을 처우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세우려 했던 唐太宗의 政治哲學이 담겨 있다. 이 책은 고려 창업 이후 호족 세력을 누르면서 전제왕권을 강화하려 한 光宗의 구미에 맞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光宗은 영민하고 무자비한 정략가인 唐太宗에게 매력을 느껴 이 책을 읽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金杜珍,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韓國學報』 15, 1979, p.67).

54) 吳 星, 「高麗 光宗代의 科擧合格者」,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55) 李基東, 앞의 논문, 1978, pp.49~61.

대의 정치가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신라계 세력도 이에 호감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종대의 이러한 추세는 고려의 관인 사회에서 학문적 소양이나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관직자의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최승로로 대표되는 6두품 계열의 신라계 정치 세력들이 왕권과 밀착하여 그들 자신의 세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지 않았나를 짐작케 해준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요(堯)·소(昭) 형제가 다른 왕자들에 비하여 혈연적으로 신라계와 가깝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요·소 형제의 모후는 태조의 제3비인 신명순성왕태후(神明順成王太后)이다. 태후는 충주 유씨(劉氏)로서 태사(太師) 내사령(內史令)에 추증된 궁달(兢達)의 딸이다.<sup>56)</sup> 여기서 궁달(兢達)과 관련하여 혜종 원년에 세워진 흥녕사(興寧寺) 징효대사(澄曉大師) 보인탑비(寶印塔碑)에 들어있는 최고위급 관료의 명단을 살펴보자.

英章大匡 王景大承…金鎰蘇判 兢達蘇判 王規左承…金奧阿滄…式榮韓滄 寬質韓滄…兢鎰海滄…允逢元甫<sup>57)</sup>

위의 비문에서 궁달(兢達)은 소판(蘇判)으로 나타나는 인물이다. 그리고 비문에 나타나는 인물중 신라계 관원들은 옛 신라 고유의 관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비문에 궁달이 소판이라는 신라 관등을 표방하고 있음은 바로 그 자신이 신라계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58)</sup> 게다가 궁달의 딸인 신명순성왕태후(神明順成王太后) 소생의 낙랑공주는 광종의 친누이인데 경순왕에게 출가한 바 있다. 이로 볼 때 광종은 신라계 외조부(外祖父)에다가 신라왕이었던 김부까지 또 자신의 매부로 두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은 고려 왕실의 친신라적 혈연 관계는 광종과 경순왕을 사돈으로 맺게 하였는데, 경종과 헌숙황후(憲肅皇后=경순왕의 딸)와의

56) 『高麗史』 卷88, 后妃1 神明順成王太后劉氏傳.

57) 黃壽永 編, 앞의 책, 1976, p.105.

58) 李鍾旭, 앞의 논문, 1997, p.14.

혼인이 바로 그 예이다.<sup>59)</sup>

이렇게 볼 때, 광종을 비롯한 고려 왕실의 신라계에 대해 갖는 애정과 왕권 안정을 위한 새로운 유교적 문신 관료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울어져 신라 6두품 계열의 학자들을 고무시켰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귀부하였던 옛 신라의 관료들이 최소한 광종 8년 이전까지만 해도 크게 세력을 떨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sup>60)</sup>

## 2. 光宗의 개혁 정치와 신라계 정치 세력

### 1) 신라계 세력의 저변 확대

지금까지 경순왕의 고려 귀부 이후 고려 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었던 신라계 정치세력이 행정 경험과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고려 왕실의 친신라적 분위기에서 나름대로의 세력을 키워왔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신라계 정치 세력의 움직임은 광종대에 처음으로 실시된 과거제(科擧制)에 편승하여 한층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신라계 정치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최승로는 그의 「오조정적평」에서 광종대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그 첫째는 즉위년부터 그 8년(957) 쌍기(雙冀) 등용 이전까지를 중국의 삼대(三代)에 비견한 시기이고, 둘째는 그 8년(957) 이후부터 10년까지로 쌍기 이외의 다른 신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치하던 시기이며, 셋째는 광종 11년부터 26년까지로 그야말로 최승로가 「崇信讒邪 多殺無辜」라고 평가한 시기이다.<sup>61)</sup> 이러한 평가는 최승로

59) 「三國史記」卷12, 新羅 敬順王.

60) 이와 관련하여 특히 黃善榮씨는 光宗이 왕위를 계승하여 26년 간이나 專制權을 행사한 시기는 新羅系에게 그들의 政治的 權勢를 급속히 부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겠다(黃善榮, 앞의 논문, 1993, pp.19~21). 그러나 필자는 이와는 달리 광종 후기의 개혁은 오히려 新羅系 政治勢力의 부상이라기보다는 이미 勳舊 勢力化한 '신라계 정치세력'의 극복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광종 말년에 숙청의 대상이 된 자들 중에 신라 귀족 출신이 많았던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가 신라계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때, 광종대의 개혁에 대한 신라계 정치 세력의 입장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광종대에는 신라계 세력으로서 어떤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었을까? 여기서 필자는 이를 살피기 위하여 광종대에 활약한 신라계 인물의 실태를 편의상 크게 둘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즉 하나는 최승로 등과 같이 고려에 귀부한 후 이미 훈구세력화한 보수 성향의 세력이요, 다른 하나는 광종대의 개혁 정치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과거를 통하여 새로이 중앙의 정치 무대에 진출한 신진 신라계 정치 세력이 그것이다.

그러면 먼저 광종 초반의 정치를 주도하면서 이미 훈구 세력으로 성장해 있던 신라계 정치 세력에 해당하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자.

손소(孫紹)는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광종 원년에 건립된 자신이 지은 대안사 광자대사비(大安寺廣慈大師碑)에서 자신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太相 □守禮賓令守元鳳令兼知制誥上柱國<sup>62)</sup>

위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신라 6두품 계열의 유학자로서 태조 이래 고려 조정에서 활약해 오던 공신 계열에 속하는 인물로 보이는데,<sup>63)</sup> 광종 초년에는 대상(大相)으로서 예빈성(禮賓省)과 원봉성(元鳳省)의 장(長)으로 지제고(知制誥)를 겸하면서 초기 정치를 주도했던 대표적 문신의 한 사람으로 보아도 별로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장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김악은 광종 16년에 건립된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鳳巖寺眞大師圓悟塔碑)에 다음과 같은 관직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61) 李基白, 「高麗初期 五代와의 關係」, 「高麗光宗研究」, 1997, pp.142~151.

河炫綱, 「光宗의 王權強化策과 그 意義」,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62)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上, p.174.

63) 全基雄, 「高麗成立期 文臣官僚層의 成長」,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1996, 혜안, p.174.

聖朝光德□□□—翰林學士太相守兵部令金岳宜繪制曰…

여기서 김악은 광종 초기에는 대상(大相)으로서 한림학사(翰林學士) 겸 수병부령(守兵部令)을 지내면서 광종의 조(詔)를 받들어 윤제(綸制)를 선포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김악 또한 태조 이래의 공신으로서 광종의 초기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진다.

최지몽(崔知夢)은 광종 당시의 직책은 미상이나 신라계와 뜻을 같이 했다고 여겨지는 인물이다. 천문과 복술(卜術)에 정통한 것으로 보아 광종 원년에 재변을 막는 방편으로 도덕을 닦도록 권유했다고 하는 '사천(司天)'이 바로 그였다고 생각된다. 또 그의 이러한 권유를 받아 광종이 『정관정요』를 읽게 되었다고 한다.<sup>64)</sup> 그러나 그후 광종 20년(969)에 왕을 따라 귀법사(歸法寺)에 갔다가 음주 후 실례를 범하여 11년간이나 귀양에 처해졌다가 경종 5년(980)에 다시 소환되었다.<sup>65)</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최지몽은 귀양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신의 한 사람으로서 광종 초기의 정치를 주도했음이 틀림없다.

태조 이래 공신 계열의 주요 인물인 최승로는 광종의 치세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지 경종 6년(981)에는 정광(正匡) 한림학사로 관직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직함은 아마도 광종대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한다.<sup>66)</sup> 그의 상서문에 광종 초기 8년 간의 치세를 중국의 삼대에 비긴 것을 보면,<sup>67)</sup>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최승로는 자신의 유교적 이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 자신부터 광종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 6두품 계열의 동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나열한 최지몽, 최승로, 김악 등은 태조 이래의 훈구 공신 계열에 속하는 신라계 정치세력 중에서 특히 광종 초기의 정치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던 인물로

64) 黃善榮, 「高麗 光宗 景宗代の 政治的 推移」, 「高麗初期王權研究」, 東亞大學校出版部, 1988, p.191.

65) 「高麗史」卷92, 列傳 崔知夢.

66) 李基東, 앞의 논문, 1984, p.273.

67) 「高麗史」卷93, 列傳 崔承老.

생각된다.<sup>68)</sup> 그 밖에 오월에서 귀국한 최행귀<sup>69)</sup>는 신라말 6두품 출신의 구지식층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오월에서 귀국한 장유(張儒), 문산계(文散階)를 겸대하며 병부, 군부를 맡았던 이몽유(李夢游), 장단설(張端說)과 고위직을 두루 걸친 바 있는 김정언(金廷彦) 등은 6두품 출신은 아니나 그에 동조하는 신진 문신 관료로 여겨진다.<sup>70)</sup>

다음으로 광종대의 과거를 통하여 새로이 중앙에 진출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진 신라계 정치 세력에 해당하는 인물을 살펴 보자. 이를 위하여 과거와 신라계 세력간에 어떤 이해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먼저 이를 검토하기 전에 광종대의 과거에 등제(登第)한 신라계 인물들의 출신 배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1> 光宗代の進士科及第者一覽表

| 科<br>實施年 | 知貢舉 | 進士 | 及第者             | 本貫            | 備考  |
|----------|-----|----|-----------------|---------------|---|
| 9년(958)  | 雙冀  | 2  | 崔暹              | ?             | 新羅貴族出身임은 自明, 本貫 不明                        |
| 11년(960) | 雙冀  | 7  | 晉兢<br>崔光範<br>徐熙 | 帶方縣(南原)<br>利川 | 晉兢(競?)은 晉卿과 異名同人<br>崔彦僞의 子 光胤, 行遠과 同行列(?) |
| 12년(961) | 雙冀  | 7  | 王學              | ?             | 賜姓받은 功臣의 후예?                              |
| 15년(964) | 趙昱  | 1  | 金策              | 光山            |   |
| 17년(966) | 王融  | 2  | 崔居業             | ?             | 新羅貴族後裔 自明, 本貫 不明, 崔業?                     |
| 23년(972) | 王融  | 4  | 楊演<br>柳邦憲       | 承化縣(全州)       |   |
| 24년(973) | 王融  | 2  | 白思柔             | ?             |   |
| 25년(974) | 王融  | 2  | 韓蘭卿             | 楊州            |   |
| ?        | ?   |    | 崔亮              | 慶州            | 成宗在潛邸引爲師友 及即位遂加擢用                         |

\* 河炫綱, 「豪族과 王權」,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p.138 및 姜喜雄, 「高麗初 科擧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韓國의 傳統과 變遷」, 高麗大亞細亞 問題研究所, 1973, pp.278~282 참조.

68) 全基雄, 「高麗 光宗代の 文臣官僚層과 「後生讒賊」」, 「釜大史學」 9, 1985, pp.143~148.

69) 「高麗史」 卷92, 列傳 崔彦僞 “行歸亦遊吳越國 其王授秘書郎 後還本國.”

70) 全基雄, 앞의 논문, 1985, pp.148~13.

『고려사』 권73 선거지(選舉志)1에 의하면, 광종대에는 모두 여덟 차례의 과거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등제자는 진사과(進士科) 27명, 명경과(明經科) 6명, 복업(卜業) 3명, 의업(醫業) 3명 등 모두 3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1)</sup> 그 중에서도 당시 가장 중요시되었던 진사과의 급제자들 중에서 신라계 인물로 알려진 사람은 앞에 제시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섬(崔暹), 진공(晉競, 競?, 卿?), 최광범(崔光範), 김책(金策), 최거업(崔居業), 최량(崔亮) 등이다. 이들 급제자는 오직 관료로서 실력을 바탕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들을 신라계 정치 세력 중에서도 신진 세력으로 불러도 좋을 것 같다.

『고려사』 권93, 열전 쌍기전에서는 958년에 시행된 첫 과거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광종 9년에 처음으로 건의하여 과거를 설치하고 드디어 그가 지공거(知貢舉)로 임명되어 시(詩), 부(賦), 송(頌), 책(策)으로써 진사 갑과에 최섬(崔暹) 등 2명, 명경과에 3명, 복업과에 2명을 선발하였다(九年始建議設科 遂知貢舉以詩賦頌策 取進士甲科崔暹等 二人明經三人卜業二人).

위의 사료에서 신라계 정치 세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2명의 제술과(製述科) 급제자인 최섬(崔暹)과 진공(晉競)의 출신 배경이 모두 신라계 귀족의 자손이라는 점이다.<sup>72)</sup> 최섬의 경우 급제 후 광종대에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전혀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나 성종대에 도고시관(都考試官)을 역임했으며, 신라계 인물인 김심언(金審言)의 장인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출신을 신라 6두품 계통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sup>73)</sup> 그렇게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진경(競, 競?)의 급제 사실은 특히 신라계 세력의 새로운 움직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가 신왕조인 고려로부터 거세

71) 許興植, 「高麗禮部試登科錄」, 『高麗科擧制度史研究』, -潮閣, 1981, pp.265~266.

72) 姜喜雄, 「高麗初 科擧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韓國의 傳統과 變遷』, 高麗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p.268.

73) 李基白, 앞의 논문, 1977, p.168 및 姜希雄, 앞의 논문, 1973, pp.268~278.

되었던 구신라 귀족의 자손으로서 과거에 등제하여 중앙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기계(杞溪) 유씨(柳氏)의 시조 의신(義臣)은 신라 아찬(阿飡)이었는데 오히려 삼재(三宰) 후에 호장이 되었다. 고려 초에 신라의 옛 신하로서 고려에 신복(臣服)하지 않아 강속(降屬)되어 향리가 되어 마침내 관(貫)으로 삼았다. 의신의 아들로 성미(成美), 진경(晉卿)이 비로소 진사에 올라 사족(士族)이 되었다(杞溪柳氏始祖義臣 新羅阿飡俞三宰之後戶長 高麗初以新羅舊臣不臣服高麗 降屬杞溪爲吏仍爲貫 義臣子成美子晉卿 始登進士爲士族).<sup>74)</sup>

위의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진경은 그의 아버지가 신라의 옛 신하(6두품?)로서 고려에 불복한 까닭에 중앙 귀족의 지위에서 기계현(杞溪縣)에 강속되어 향리로 좌천당한 신라의 구신(舊臣)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75)</sup> 여기서 진궁(晉競)의 등제(登第)는 고려조에 불복한 구신라계 세력의 새로운 동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점차 그들도 신왕조의 정통성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아뵘든 진궁의 등제는 광종대에 이르면 고려 건국에 불복한 신라계 세력이라도 기용될 수 있다는 관리의 등용 방침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이는 신진 신라계 세력의 중앙 진출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진궁에 대하여 광종대 개혁의 전위 세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sup>76)</sup> 필자는 진궁도 넓은 의미의 신라계의 인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한

74) 李蘭暎 編, 앞의 책, 1968, p.176.

75) 太祖 王建 때 逆命不臣한 부류들은 노예로 전락하거나 海島에 유배되기도 하고 驛子, 津尺, 賤鄉, 部曲民이 되기도 하였는데, 敬順王의 귀부 때 항복에 반대한 무리 역시 결국은 이러한 길을 걷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金皓東, 「高麗武臣正權下에서의 慶州民의 動態와 新羅復興運動」, 「民族文化論叢」第2·3輯,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882, pp.266~267 및 李樹健,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4). 그 예로 「太祖實錄」卷1, 太祖元年 8月 己巳條에 “前朝五道兩界驛子津尺部曲之人 皆是太祖時逆命者 俱當賤役”이라 하였고, 「高麗史」卷93, 崔承老傳과 同書 卷122, 宦者 鄭誠傳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76) 吳 晔, 앞의 논문, 1981, p.34의 註10.

다.

제2차 선장(選場)에서 선발된 최광범(崔光範)에 대해서는 급제 기록 외에는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출신이나 가문 역시 분명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최언위의 아들인 광윤(光胤), 광원(光遠)과 같은 항렬인 것으로 보아 최언위의 아들이 아닌 가 하는 견해가 있는데,<sup>77)</sup> 필자 역시 최소한 최언위 가문과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인물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최광범은 제1차 선장에서 급제한 최섬(崔暹)과 마찬가지로 유학자로서의 능력 내지는 학문적 재능이 인정되어 등제한 신라계의 인물로 생각된다.

한림학사로 있으면서 쌍기 이후 첫 지공거가 된 조익(趙翬)이나 그 다음에 지공거로 임명된 한림학사 왕융(王融)은 신라 귀족의 후예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들이 급제시킨 3명의 진사(進士)중에는 적어도 2명이 신라 귀족의 자손이 있었다. 그 예로 제4차 선장에서 조익이 뽑은 김책(金策)은 신라 왕족인 광산 김씨로서 조부와 부가 모두 고려에 출사한 신라계의 역세훈신(歷世勳臣)이었다.<sup>78)</sup> 김책의 등과(登科)는 쌍기 등용 이래 소외된 역세 훈신에 대한 광종의 유화책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김책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왕이 친덕전에 나와 여러 신하들과 연회를 하고 책(策)에게 명하여 연회에 참가하게 하였다(賜金策等及第 御天德殿宴群臣 命策赴宴 : 『高麗史』卷2, 光宗 15年 春3月條).

여기서 왕이 친히 베푸는 궁정연회에 신하들을 초대할 자리에 진사 김책을 연회에 참여케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5차 선장에서 급제한 최거업(崔居業)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신라 귀족 출신으로 여겨진다.<sup>79)</sup>

77) 姜喜雄, 앞의 논문, 1981, p.279.

78) 李蘭暎 編, 앞의 책, 1968, p.133.

79) 姜喜雄, 앞의 논문, 1981, p.286. 姜喜雄은 崔居業이 光宗 23년 徐熙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宋에 다녀온 崔業과 동일인물이 아닐까 추측하면서, 崔居業이 신라계 출신임은 분명하지만 本貫이나 배경은 不明이라고 하였는데, 필자 역시 이에 동감한다.

최량(崔亮)은 광종대에 등제하여 공문박사(攻文博士)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급제한 다음 해에 광종이 죽기 때문에 광종대에 있어서의 그의 역할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sup>80)</sup> 최량에 대해서는 성종대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지금까지 광종대에 등장한 신라계 훈구 세력에 해당하는 인물과 과거급제자들 중 신진 신라계 세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아직 함께 결집하여 정치 세력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81)</sup> 그리고 이들 신진급제자 중에서 '1년도 못되어 경상(卿相)의 지위에 오른' 인물도 찾아볼 수 없다.<sup>82)</sup> 그러나 광종대를 통털어 볼 때, 과거를 통해 등장하는 신진 신라계 세력이 점차 고려의 정치 사회에서 서서히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新進勢力의 대두와 신라계 정치세력

지금까지 신라계 정치 세력이 점차 고려의 정치 사회에서 그 저변을 확대해 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광종대에는 신진 신라계 정치 세력 이외에도 한편으로는 신라계 세력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또 다른 신진 세력이 새로이 기용되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면 먼저 신진 세력의 실체에 대해 살펴면서 신라계 세력과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하자.

광종은 즉위 9년에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새로운 관료군을 창출하여 과단성 있는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자 광종은 국내 세력 기반이 전혀 없거나 영세(零細)한, 새로운 인물들을 필요로 했다. 그리하여 광종은 후주(後周) 세종(世宗)의 개혁에 직접 참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쌍기를 중용하여<sup>83)</sup>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광종의 쌍기를 비롯한 투화인(投化人)들과 신진 문사들에 대한 우대 조치가 고려 초에 귀부하여

80)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p.168~169.

81) 吳 晙, 앞의 논문, 1981, pp.39~45.

82) 吳 晙, 앞의 논문, 1981. 그러나 光宗이 신임하는 宰相 徐弼의 아들인 18세의 進士 徐熙를 초임에 廣評員外郎에 임명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특례에 해당된다.

83) 姜喜雄, 앞의 논문, 1973 ; 「韓國史論文選集(高麗篇)」, 歷史學會, 1977. 여기서 필자는 後周의 世宗과 光宗을 연결지어 雙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

이미 대성(大姓)으로 성장한 신라계 세력들의 불만의 요인이 된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최승로가 그의 상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쌍기를 등용한 후로부터 문사(文士)를 존중하고 대우함이 지나치게 풍후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재주없는 자(非才)가 외람되어 진급하고, 차례를 무시하고 벼슬이 뛰어 올라 1년이 못되어 문득 경상(卿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及雙翼見用以來 崇重文士 恩禮過豐 由是 非才濫進 不次驟遷 未浹歲時 便爲卿相 : 「高麗史」卷93, 列傳, 崔承老傳).

위의 사료를 통해 볼 때, 당시 쌍기를 위시하여 급격히 부상한 귀화인들이 광종대 정치에 깊숙히 간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종은 아마도 일부 친위 세력과 더불어 기득권층과는 계통적 연고가 없는 귀화인을 개혁의 전위 세력으로 내세우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광종 전반에 걸친 정치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승로가 광종과 쌍기를 혹평한 이유는 광종이 쌍기계의 신진 세력들을 우대하자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계 기득권 세력의 불만이 표출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승로의 입장은 광종에 대한 정적평(政績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위한 해로부터 8년간 정치와 교화가 맑고 공평하였고 형벌과 표창을 남용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쌍기가 등용된 이래 문사를 숭중(崇重)하여 은례(恩禮)가 지나치게 풍성하니 이로 말미암아 비재(非才)가 외람되게 진출하여 차례를 뛰어 빨리 승진하여 한 해를 채우지 않고 문득 경상(卿相)이 되곤 하였습니다. 혹은 날마다 사람을 인견하고 혹은 날마다 연일 손님을 초대하곤 했습니다. 이로써 환락을 일삼고 정사를 게을리 하니 군국(軍國)의 요무(要務)가 막혀 통하지 않고 酒食과 연유(讌遊)는 잇달아 끊어지지 않았습니 다. 이에 남북용인(南北庸人)들이 다투어 의투(依投)하기를 원하니 그 지혜가 있고 재조(才操)가 있음을 논하지 않고 모두 수은수례((殊恩殊禮)로 접대하니 이때문에 후생(後生)이 다투어 진출하고 구덕(舊德)은 점차로 쇠퇴하였습니다. 비록 화풍(華風)을 중히 하여도 중화(中華)의 좋은 법은 취하지 않았고 비록 화사(華士)를 예우하였다 하여도 중화의 어진 인재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는 서정에 근심하지 않고 빈료(賓僚)만 접견하였던 고로 시기(猜忌)가 날로 깊어가고 도유(都兪)

가 날로 막혀 시정의 득실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自卽位之年至于八載 政教  
 清平 刑償不濫 及雙冀見用以來 崇重文士 恩禮過豐 由是非才濫進 不次驟遷 未浹歲時  
 便爲卿相 或連宵引見 或繼日延客 以此圖歡 怠於政事 軍國要務壅塞不通 酒食譙遊聯縣  
 靡絕 於是南北庸人 競願依投 不論其有智有才 皆接以殊恩殊禮 所以後生爭進 舊德漸衰  
 雖重華風 不取華之令典 雖禮華士 不得華之賢…因此不復憂勤庶政 而接見賓僚 故猜忌日  
 深 都兪曰阻時政得失 無敢言者：「高麗史」卷93 列傳 崔承老).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승로는 광종 8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치세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광종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최승  
 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덕(舊德)을 지닌 문사들이 정치의 주역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여기서 구덕을 지닌 문사라 함은 물론 왕융(王融)이나 조익(趙  
 翼) 그리고 최승로를 비롯한 신라계 정치 세력을 포괄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sup>84)</sup>

「고려사」 권73 선거지 1에서는 관리 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과거 외에도 숨은 인재의 추천, 공로 있는 사람의 후손의 등용, 성중애마의 선발 배  
 치, 남반의 여러 가지 등용 등이 있어서 벼슬에 나가는 길은 과거 보는 길 한 가지만  
 이 아니었다(科目之外 又有遺逸之薦 門蔭之叙 成衆愛馬之選補 南班雜路之陞轉 所進之  
 途非一矣).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덕(舊德)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공신으로서 그들  
 자신과 자손들은 과거 실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성 또는 자질을 인정받아 벼슬  
 에 오를 수 있는 유일(遺逸), 문음(門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등용의 절차를 통  
 하여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sup>85)</sup>

상서문에 나타난 최승로의 입장을 볼 때, 그는 과거제 실시로 인한 기존의 정치  
 질서의 혼란상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신라 6

84) 兪炳基, 「光宗代の 王權強化와 統治體制에 대한 一考」, 『全州史學』 3, 1995, p.57.

85) 麗初의 門蔭의 성격은 祖父의 餘澤으로 勳臣, 太祖功臣, 引年致仕, 戰死, 前韓功臣, 頒赦, 親禱大廟와 卒蔭의 경우 그 子孫과 收養子, 外孫弟, 甥姪, 女婿 등의 친척들에게 官職으로 官人 身分의 유지를 위하여 고려가 功臣들에게 수여한 보장책이었다(金毅圭, 「高麗官人社會의 性格에 대한 試考」, 『歷史學報』 58, 1973).

두품 계열의 유학자였던 만큼 과거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6)</sup>

최승로를 비롯한 구덕을 지닌 문사(文士)들은 한 때 광종 초반의 정치를 일컬어 중국의 삼대(三代)에 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종의 치세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태도가 쌓기를 중용한 이래 들변하고 있다. 상서문에 보이는 문사, 비재(非才)란 바로 쌓기를 혹평한 말이며, 이 외에도 최승로는 과거제 실시 전후에 등장하는 투화인(投化人)과 여초 중국 유학생 및 지방의 소토호(小土豪)들도 '남북용인(南北庸人)'<sup>87)</sup>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 신진 세력은 광종이 제한된 목적하에 실시한 과거를 통하여 새로이 중앙에 진출하였던 자들로 구세력과는 무관하게 광종대의 개혁을 담당한 주도 세력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종은 이들을 요직에 등용하여 기득권층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요직이라 함은 한림학사직을 말하는데, 이들이 광종대의 개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점을 중시하여 이 시대의 정치를 아예 '학사정치(學士政治)'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88)</sup>

광종대의 정치가 학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당시에 학사직에 있었던 최승로가

---

86) 河炫綱, 앞의 논문, 1975, p.17 및 黃善榮, 앞의 논문, 1988, p.210, 註58.

87) 南北庸人の 실체에 대해서 後百濟·渤海 系統 인물이라는 견해(李基白, 「崔承老와 그의 政治思想」, 「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1993, p.239), 中國出身 인사로 보는 견해(河炫綱, 앞의 논문, 1975, p.17. 및 李基東, 앞의 논문, 1978, p.57), 그리고 이기백의 견해처럼 後百濟·渤海系統으로 보고 여기에 中國 留學生 등을 추가하는 견해(金塘澤,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元年 田柴科」,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pp.52~54), 國外에서 來投한 歸化人들로 보는 견해(朴玉杰, 「高麗時代의 渤海人과 그 後裔」,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1988, p.199) 등이 있다.

'南北庸人'은, 같은 대목에서의 '後生', '非才' 등을 포함하는 한편으로는 '舊德'과는 對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金塘澤, 앞의 논문, 1981, pp.48~56). 따라서 필자는 이들을 '舊德'으로 대표되는 최승로와 정치노선이나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非新羅系 新進政治勢力에 속하는 인물로서 光宗代에 새로이 진출하여 광종의 측근이 되었던 세력을 통칭하는 말로 생각한다.

88) 李基東, 앞의 논문, 1978, p.52.

이를 혹독하게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필자는 최승로를 비롯한 신라 6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아성으로 여겨왔던 학사직을 ‘남북용인’과 같은 신진 세력들에게 대거 잠식 당하게 되자, 이에 따른 위기 의식이 작용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광종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미 훈구세력화한 신라계 출신의 학사보다는 과단성있는 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새로이 등용된 신진 세력을 총애하고 중용하였던 것이다.

사실 당시의 광종은 학사들과 모든 정사를 토의하였으며 태조대 이래 이들의 정치적 역할 또한 지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태조 당시 학사였던 김악이 왕의 유조(遺詔)를 기초하고 선포했음을 앞서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고려 초기 학사직의 비중을 가늠케 해준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학사를 거친 후에 현직(顯職)에로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당시의 학사직은 조선의 三司와 같이 그 직위는 낮으나 고위 관직으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청요직(淸要職)으로 생각된 듯하다.

이렇듯 중요한 직책에 광종은 투화인과 남북용인을 대거 임용했을 뿐, 신라계 출신이나 이와 이해 관계를 같이하던 훈구공신(勳舊功臣) 계열은 소외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최승로는 중국에 유학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수학한 국내파(國內派)였으므로<sup>89)</sup> 광종의 투화인 우대 정책에 대하여 특히 불만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쌍기 중용 이후 광종은 정치 전반에 걸쳐 쌍기 계열의 학사들에게서 자문을 구했다. 여기서 광종의 측근 세력이 된 자들은 세력 기반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sup>90)</sup> 따라서 그들의 이권도 그것이 권력이든 물질적이든 왕권의 강화 정도에 비례하여 부침(浮沈)하는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당시 중앙의 대성으로 성장했으리라 추정되는 최승로 및 공신 세력의 이해 관계와는 상반되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며 그에 따른 반발의 정도는 더욱 컸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서필(徐弼)이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89) 河炫綱, 앞의 논문, 1975, p.52 .

90) 光宗을 지지하여 개혁을 주도한 세력에 대하여 功臣의 반열에 들지 못한 통일 전쟁 과정에서 낙오된 豪族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光洙,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史學志』 제7집, 1973, p.56).

당시 광종은 귀화하여 온 중국 사람들을 후이 대접하여 신료들의 주택을 취하여 배정해 주고 처녀들도 택해서 주곤 하였다. 하루는 서필이 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좀 넓으니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時光宗厚待投化漢人 擇取臣僚第宅及女與之 一日弼奏曰臣居第稍寬 原以獻焉 : 『高麗史』卷93 列傳 徐弼).

위 사료는 고려 조정의 귀족들이 투화인의 탁용(擢用)에 대하여 커다란 불만을 느끼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사료이다. 특히 앞서 제시한 최승로의 상서문 중에 “이로 인하여 다시는 서정에 근심하지 않고 빈료(賓僚)만 접견하였던 고로 시기(猜忌)가 날로 깊어가고 도유(都兪)가 날로 막혀 시정(時政)의 득실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라고 한 내용은 태조 때부터 문명을 떨쳐 태조의 총애를 받아 과거 제 실시 이전부터 문병(文柄)을 장악했으리라 생각되는 최승로가 광종이 그를 비롯한 빈료들을 소외시킨 데서 오는 자신의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광종의 개혁 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가자 광종은 이러한 공신들의 기미를 알아채고 유화책을 시도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sup>91)</sup>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마침내 전제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광종은 철저한 공신 숙청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功臣肅淸과 신라계 정치세력

지금까지 고려 태조 이후의 정치를 주도해 왔던 세력은 단연 호족공신(豪族功臣) 계열이라 할 수 있지만,<sup>92)</sup>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계 정치 세력 역시 혜종과 정종의 통치를 걸쳐 광종대에 이르는 동안 꾸준히 그 성장세를 유지해 왔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신라계 정치세력이 광종대의 공신 숙청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

91) 姜喜雄은 그의 앞의 논문(1973)에서 科擧制 實施初期(3차까지)의 及第者 중에서 雙翼 重用이래 소외되었던 歷世勳臣宿將과 舊新羅의 王族 및 貴族 出身의 인물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는 光宗이 유화 정책을 행한 흔적이라고 주장하였다.

92) 金福熙, 「高麗 初期 官階의 成立基盤—沮西豪族의 動向과 관련하여」, 『釜大史學』 14, 1990, p.73.

게 그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광종은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과 과거제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하여 무장공신(武將功臣) 세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이들의 일부를 중앙 정계에서 제거하였다.<sup>93)</sup> 광종에 의한 공신 숙청의 시작은 광종 11년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의 모역 고변(告變)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신 숙청 작업이 행해졌다. 그 결과 여초부터 고려에 사관(仕官)한 훈신숙장(勳臣宿將), 세신고가(世臣故家)들이 제거되어 갔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훈구세력화한 일부 신라계 세력 중에 촉망받던 인물 중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차 신라계 정치 세력이 광종대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고려사』 광종 11년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 때부터 아첨하는 자들이 득세하여 충량(忠良)을 모함하였으며 노(奴)가 제 주인을 고소하고 아들이 제 아버를 참소하여 감옥이 항상 가득차게 되었다. 이리하여 따로 임시감옥까지 설치하였다. 죄없이 잡혀 죽는 자가 계속 생겨나고 시기(猜忌)가 날로 심해졌다. 왕실 일족들도 많이 잡혀 죽었고 왕의 외아들인 주(卣)까지도 역시 의심을 받아 왕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마주 앉아 이야기도 하지 못하였다(自是讒佞得志 誣陷忠良 奴訴其主 子讒其父 令囹圄溢 別置假獄 無罪而被戮者有相繼 猜忌日甚 宗族多不得保 雖一子卣亦自疑 阻不使親近 人人畏懼 莫敢偶語)

이때 숙청된 대표적인 예로 당시 훈신숙장(勳臣宿將)의 으뜸이던 박수경(朴守卿)의 셋째 아들을 하옥시킨 사건<sup>94)</sup>을 비롯하여 신라계의 인물인 최언위의 아들인 최행귀 좌사(坐死) 사건,<sup>95)</sup> 사천관(司天官) 최지몽(崔知夢)이 폄출(貶黜) 당한 사실<sup>96)</sup>

93) 姜喜雄, 앞의 논문, 1973, pp.265~266.

94) 『高麗史』 卷92, 列傳 朴守卿 “光宗十五年 子佐丞承位承景 大相承禮等 被讒下獄 守卿憂志而卒.”

95) 『高麗史』 卷92, 列傳 崔彦爲, “최행귀는 오월국에 유학하였는데 그 나라 왕이 비서랑을 제수하였다.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 광종을 섬겨 총애 받는 신하가 되었다가 坐死되었다(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광종 측근에서 개혁을 추진하던 신라계 문신 관료가 숙청된 일련의 사건들은 신라계 세력으로 하여금 그동안 안주해 왔던 자신들의 지나친 왕권 의존적 경향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행귀의 좌사(坐死)는 부단히 세력 부상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신라계 출신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행귀와 함께 신라계의 촉망을 받았던 최승로가 광종의 지나친 공신 숙청과 전제 왕권 강화를 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는 단순하게 최승로 자신의 개인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이를 광종대의 정치를 바라보는 당시 대다수 신라계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뒤의 일이지만 최승로는 그의 상서문에서 일련의 공신 숙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하였다.

또 일찍이 혜(惠)·정(定)·광종(光宗)이 상계(相繼)한 처음은 백사(百事)가 안녕하지 못하여 양경(兩京)의 문무관이 반이나 이미 살상되었고 하물며 광종 말년에는 세상이 어지럽고 참언(讒言)이 일어나 무릇 형장(刑章)에 매임이 대개 무고한 사람이라 역세의 혼신과 숙장이 모두 죽임을 면치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경종이 천조(踐祚)함에 미쳐 옛 신하(舊臣)으로서 살아 남은 자가 40여 인일 따름이다. 그 때 또한 해를 만난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후생참적(後生讒賊)이라 참으로 애석할 것도 없었습니다(又曾見惠定光三宗相繼之初 百事未寧之際 兩京文武半已殺傷 況屬光宗末年 世亂讒興 凡繫刑章 多是非辜歷世勳臣宿將 皆未免 誅鋤而盡 及景宗踐祚舊臣之存者 四十餘人耳 其時亦有人遇害衆多 皆是後生讒賊 誠不足惜 : 『高麗史』 卷93, 列傳 崔承老).

여기서 그는 구신(舊臣), 숙장(宿將)들이 차례로 주이(誅夷)되어 경종대에 이르러서는 4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광종 즉위 당시 얼마나 많은 구신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관청에서 태조 때의 공신인 대광(大匡) 천명(千明) 등 3,200명에게 순서에 따라

---

歸亦遊吳越國 其王授秘書郎 後還本國 事光宗爲倖臣坐死.”

96) 『高麗史』 卷92, 崔知夢傳. 그는 경종 5년 貶黜된지 11년만에 소환되었는데 이를 역으로 산출하면 光宗 11년에 해당된다.

벼슬을 추증(追贈)하자고 청했더니 왕이 이 말을 따랐다(有司 請追贈太祖功臣 大匡千明等三千二百人 次第職從之 : 『高麗史』卷7, 文宗 8年 12月 庚寅條).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태조 당시의 공신이 원래 3,200명이었다면, 그 중 상당수가 광종 초년까지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들 중에는 호족 공신 세력에 해당하는 인물이 대부분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귀부한 구신라 귀족 출신들도 상당수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신라왕 김부가 귀부할 때 이끌고 온 백료와 사서(士庶) 등이 고려의 관인층으로 흡수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예컨대 최승로가 김부를 따라 개경에 와서 태조를 배알하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원봉성(元鳳省)의 학생이 되었다는 것<sup>97)</sup>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단 12세의 최승로뿐만 아니라 신라의 많은 재사(才士), 관인들이 고려에 임사(任仕)하였으며, 통일과 함께 신국가 건설 과정에서 우수한 관료군인 신라 출신 인물들이 기용된 바 있다. 태조공신 중에는 태조의 측근의 최웅(崔凝), 최지몽 등 참모격 유신(儒臣)<sup>98)</sup>과 최언위, 김약 등 신라 6두품 출신 유학자들, 그리고 태봉(泰封)의 관료로서 고려에 흡수된 관인(官人)도 있었다.<sup>99)</sup> 이들은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기 당시에 중요시되었던 무인(武人)들에 비하여 비교적 하위의 관계(官階)를 가지고 있었다.<sup>100)</sup> 이들은 군사적 실력은 물론 독자적인 경제 기반도 미약하였으며 재지적(在地的) 기반도 취약하여 오로지 국왕에게 봉사함으로써 그 대가를 기대할 뿐이었다.

이들은 그 후 태조 사후 불안한 정세와 혼란 속에서 신라계라는 동질성으로 인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광종 초년에 이르면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었다. 그러나 광종의 개혁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신라계 정치 세력은 광종이 펼친 일련의 개혁 정치로 인하여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되

97) 『高麗史』卷93 列傳 崔承老. 또한 許興植은 龍珠寺幢竿記(『朝鮮金石總覽』上, p.195)에 보이는 '前翰林學生金遠'에 주목하여 이것을 元鳳省 學生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許興植, 「高麗 科擧制度的 成立과 發展」, 앞의 책, 1981, p.13).

98) 『補閑集』(上)에서 崔凝은 太祖의 參謀로 표현되고 있다.

99) 邊太燮, 앞의 논문, 1981, p.161.

100) 全基雄, 앞의 논문, 1985, p.31.

었고 광종 말년에 이르러서는 왕권과 마찰을 빚기도 하여 최행귀, 최지몽 등과 같은 신라계 문신들이 제거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으니<sup>101)</sup> 이는 필시 신라계 정치 세력으로서도 보통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성을 띤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광종 11년 이후의 공신 숙청은 차라리 공포정치라고 할 만하였다. 이때 숙청 대상이 된 자들 중에 신라 귀족 출신이 많았다는 사실<sup>102)</sup>은 최승로 등 신라계 세력이 이후 귀족적 또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한다. 광종 당시의 최승로는 태조 이래 원봉성에 예속된 뒤 문병을 위임했던 것으로 미루어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된 채 학사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구명을 위해 소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03)</sup> 사실 그는 광종 때 8회에 걸쳐 시행되었던 과거에서 단 한 번도 지공거를 역임하지 못했다.<sup>104)</sup> 이는 당시 신라계 정치세력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을 충분히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최승로의 심경은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 상권에 그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선장입당문자겸반내과시(謝宣獎入唐文字兼頒內庫酒果詩)」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행히 천 년만에 지존을 만나 재주없는 몸이 직책 더럽히며 서원(西垣)에 있네/ 문장이 있어 감히 여러 선비들과 같기를 바랄까마는/ 총애가 우악하니 반드시 후손에게 자랑하여 보일거로세/ 감동함이 지나치면 다만 눈물 흘릴 따름이고 기쁨이 깊은 곳엔 오히려 말이 없네/ 보답의 길 생각해도 끝내 찾지 못하니 다만 남산수(南山壽)를 축원하며 성은에 절하네(多幸千年遇至尊 不才忝職在西垣 文章敢望同諸彦 寵渥須誇示後昆 銘感極來徒有淚 喜歡深處却無言 尋思報答終難得 但祝南山拜聖恩).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즉 김철준, 이기백 등은 광종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sup>105)</sup> 필자는 성종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하현

101) 河炫綱, 「光宗의 王權強化策과 그 意義」,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102) 姜喜雄, 앞의 논문, 1973, pp.86~88.

103) 河炫綱, 앞의 논문, 1975, p.15.

104) 『高麗史』 卷73 選舉志1에 의하면 光宗代에 8회에 걸쳐 科擧가 실시되었는데, 雙翼은 3회, 趙諤은 1회, 王融은 4회 知貢擧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강의 주장에 동조한다.<sup>106)</sup> 그렇다면 시 구절 중 ‘다행히 천년만에 지존을 만났다(多幸千年遇至尊)’라고 한 말은 당시 의기소침해 있던 최승로의 심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광종대의 공포 정치가 최승로로서는 마치 1천년이나 길게 느껴졌던 것이다. 또 최승로가 스스로를 ‘재주없는 몸이 직책을 더럽히며 서원에 있다(不才忝職在西垣)’<sup>107)</sup>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당시 그는 학사직 또는 근시직(近侍職)을 담당하면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08)</sup>

이 외에도 광종 당시의 최승로가 어떠한 직책에 있었는지는 그의 상서문 첫머리에 나타나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승로가 상서하여 말하기를, “신은 초야에서 성장하였고 성품이 우암하며 또한 학술조차 보잘 것 없습니다. 다행히 광명한 시절을 만나 오래 동안 외람되게 근직(近職)에서 복무하였으며 누차 특수한 영광을 입었습니다(承老上書曰 臣生長草野 性稟愚暗 且無學術 幸值明時 久叨近職 累竊殊榮 : 『高麗史』 93 列傳 崔承老).

여기서 근직(近職)이란 왕을 가까이 모시는 근시직(近侍職)을 말하는데, 최승로는 12세 때 원봉성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아 광종 당시 한림학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최승로를 위시한 구신라에서 귀부한 지식층들이 권력의 핵심에서는 소외되고 있지만 그들의 학문과 문장 그리고 행정 실무 능력을 배경으로 고려 관인 사회의 중견 관료로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 6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은 주로 문한을 담당하는 학사직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최승로는 앞서 언급한 구덕(舊德)을 지닌 문사(文士)에 해당되며 광종초의 정치에 적극 참여하다가 광종 7년 이후 신진 세력의 형성으로 그 주도적 역할에서 제외된 듯하다. 앞서 제시한 사료에서 보이는 ‘구덕이 점차 시들해갔다(舊德漸

105) 金哲堧, 앞의 논문, 1965 및 李基白, 앞의 논문, 1993.

106) 河炫綱, 앞의 논문, 1975, pp.4~6.

107) 여기서 서원(西垣)이란 당시 三省의 하나인 中書省의 별칭으로 中書省이 대궐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08)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7 pp.38~39 및 李基東, 앞의 논문, 1978, pp.273~274.

衰)’는 최승로로 대표되는 훈구 세력 반열에 있는 신라계 세력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최승로는 쌍기의 등장 이후 단 한번도 지공거를 말지 못하는 등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것이다.<sup>109)</sup>

이렇게 보면 광종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정계에서 신라 출신 유학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광종 7년 이후로는 화사(華士), 후생(後生) 등 신진 세력에게 주도적 위치를 빼앗긴 듯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광종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과거를 통하여 신진 신라계 세력이 기용되어 고려 관료 사회에 포진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므로, 필자는 광종대를 단순히 신라계 정치 세력의 후퇴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의 관인 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던 신라계 정치 세력이 앞으로 다가올 자신들의 도약을 기약하며 그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던 내재적 성장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 IV. 新羅系 政治勢力의 浮上

### 1. 景宗代의 復古的 政變과 신라계 정치세력

지금까지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한 이래 정·광종대를 거쳐오는 동안 신라계 정치 세력이 고려의 정치 사회에서 점차 뿌리를 내리면서 그 세력 기반을 확대해 오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필자는 이렇게 성장을 거듭해 온 신라계 정치 세력이 자신의 세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경종대라고 생각한다.

경종의 왕위 계승은 부자상속에 의한 것이었고 이는 곧 왕권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종대 개혁의 한계성로 인하여 정치 불안은 경종대까지 지속되었다. 즉 광종이 죽자 억압당했던 훈구세력에 의한 ‘복고적(復古的) 정변(政變)’<sup>110)</sup>이

109) 河炫綱, 앞의 논문, 1975, p.6.

110) 許興植은 경종 즉위초에 광종의 개혁 정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다시 일어나 고려는 다시 한 번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정계 재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경종대의 지배 세력은 태조 때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황주(黃州) 황보(皇甫)씨 등 개국 공신 계열의 호족 세력인 3왕후족과 광종대에 진출한 신진 문신 관료 및 신라계 세력의 부상으로 크게 대별된다.<sup>111)</sup> 그 중에서도 필자는 경종대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라계 세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면 경종대에 신라계 정치 세력이 크게 부상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경종은 즉위초에 광종대 개혁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왕권의 안정을 위하여 여러 정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회유책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절요』 권2, 경종 즉위년조(975)에 나타나는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광종이 죽으매 왕이 즉위하였다. 대사령을 내리어 귀양갔던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갇혔던 사람을 풀어주고 흠있는 사람은 벗겨주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을 발탁했으며, 관작을 빼앗긴 사람은 복직시켜 주었다. 그리고 채무를 덜어주고 조세와 공납을 감해 주었으며 임시 감옥을 헐고 참소하는 글을 불살라 버렸다(光宗薨 王卽位 大赦還流竄 放囚繫洗痕累拔淹滯 復官爵 蠲欠債減租調 毀假獄焚讒書).

위 사료의 내용을 보건대, 경종은 즉위와 동시에 복고적 조치로 대사령(大赦令)을 내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때 사면되어 풀려나거나 관작(官爵)이 회복된 사람 중에는 광종에 의해 희생된 개국공신 계열의 인물을 비롯하여 광종대에 숙청되었던 최지몽 등의 신라계 일부 문신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 경종의 왕권 안정책은 그의 혼인 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본다. 경종은 즉위년과 원년 사이에 다섯 명의 비를 맞아 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김부의 딸인 헌숙왕후(獻肅王后) 김씨를 가장 먼저 제1비로 맞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신라계 정치 세력의 부상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

과동을 '復古的 政變'이라고 하였음(許興植, 앞의 논문, 1981, p.12).

111) 李基白 外, 「崔承老上書文研究」, 『潮閣』, 1997, p.65.

그러면 여기서 경종의 정국 안정책에 편승하여 광종 당시 진출한 신진 문신 관료층과 신라계 정치세력의 동향을 통하여 신라계 정치 세력이 부상하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경종대에 이르면 광종 당시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되었던 신라계 정치 세력은 경종대의 복고적 정변 과정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던 광종대 왕용계열의 신진 문신 관료와 제휴하게 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광종 당시 지공거를 여러 차례 역임하였으며 개혁의 주요 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왕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왕용에 대해서는 그의 출신과 관련하여 그를 온건한 학자로서 정치에는 직접 간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sup>112)</sup>와 왕용이 오월 출신으로서 남북용인 중 남(南)에 해당하는 인물로 광종대의 개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113)</sup> 그러나 필자는 그의 출신과 관계 없이 왕용 자신이 광종대에 지공거를 여러 번 역임한 이력 그 자체가 광종 당시의 개혁 주도 인물로 볼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여기서 왕용 자신과 왕용이 지공거 시절에 급제시켰던 일부 문신 관료층들은 경종대에 일고 있었던 복고적 정변의 와중에서 자신의 구명을 위한 자구책으로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계 세력과의 제휴를 시도한 것 같다.

여기서 왕용 계열의 인물과 신라계 세력간의 제휴 배경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왕용과 최승로의 교분 관계를 말할 필요가 있다. 광종대의 문신이었던 왕용과 신라계 6두품 출신인 최승로는 태조 이래 성장한 문인으로서 광종대의 숙청 바람 속에서 살아 남은 구신(舊臣)에 해당하는 인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친분 관계는 경종 6년에 건립된 강주(康州) 지곡사(智谷寺) 진관선사오공탑비(眞觀禪師悟空塔碑)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때에 정광 한림학사 최승로는 여러 대에 걸쳐 문한을 담당하였으므로 임금의 명을 받게 되었다. 대저 유명(幽明)을 출척(黜陟)함은 왕의 뜻을 계획하는 것이며,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에 나아가는 글을 올리는 것은 재주 있는 자의 말에서 시작되는

112)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16.

113) 李基東, 앞의 논문, 1978, p.57.

것이다. 진실로 부당하다면 역시 말미암아 쓰지 않을 것이니, 어찌 다만 불(佛)·도(道)의 분수(緇黃之分)가 온전해져야만 원대한 이름이 넓고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왕의 자비가 깊이 나타났고 아름다운 장려가 이미 능했으니, 네가 아는 바를 천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라 하였다.

최자(최승로)가 절하여 가로되, “민천에 옷소매를 떨친(분발하여 일어난) 자로서 왕옹이라는 이가 있는데, 지난 해에 연곡산 현각선사비송 일작(一斫)을 초하였습니다. 비록 문학이 충분하지는 못하나 심력에 태만함이 없으니 두루 시험해 보시면 반드시 조상의 덕을 이어 받아 닦아 (좋은 문장을) 올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時政匡 翰林學士 崔承老 則數朝紡絡絲綸之手也 對揚休明 夫黜幽陟明 計王者旨 抽毫進牘 自才子之辭 苟若不當 亦由非用 豈獨緇黃之分仍全 遠大之名頓豁 王慈深形 嘉獎既能 舉學所知 而乃必得其人 崔者拜而對曰 有閩川拂衣者王融 去載宣草 鷲谷山玄覺禪師碑頌一斫 雖文學弗充 且心力罔怠 希言歷試 必進聿修).<sup>114)</sup>

위 사료에 의하면 경종이 최승로에게 진관선사오공탑비문을 짓게 한 바 있는데, 이때 왕옹과 최승로가 각각 ‘최자(崔子)’ 또는 ‘민천불의자(閩川拂衣者)’로 호칭하면서 진관선사비문의 찬술(撰述)을 서로 양보하는 등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친신라적 성격이 강했던 유학자들이 숙청의 바람이 거셌던 광종대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 왕옹계 세력의 비호 아래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은 함께 광종 이후 혜종, 정종시의 왕실 비극과 광종대의 급진적 개혁 정치의 모순을 체험하고는 점진적인 관료제 시행을 이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sup>115)</sup> 이는 앞으로 전개될 왕옹으로 대표되는 광종대의 문신과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계 정치 세력 간의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협력 관계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이들의 제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최자는 「보한집」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14) 「釋苑詞林」 권191, 康州 智谷寺 眞觀禪師碑 ; 許興植 編,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1976, pp.75~87.

115) 許興植, 앞의 논문, 1984, p.11.

성종 15년 8월에 어가(御駕)가 동경(東京)에 행차하여 죄인들을 사면하고, 무릇 기특한 재주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벽진 고을에 묻혀 지내는 자가 있으면 담당 기관에 조칙을 내려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하였으며, 또 내외에 걸쳐 의부(義夫), 절부(節婦), 효자(孝子), 순손(順孫)을 찾아내어 문려에 정표를 세우고 상품을 차이나게 내렸다. 경순왕이 고려에 입조하던 날 같이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늙은이(鮑背)들 뿐이었다. 오히려 일반 백성의 몸(白衣)으로 시를 지어 내상(內相)이던 왕융(王融)에게 바쳤는데, 이르기를 “구천의 빛 움직여 별을 구르고/ 일패(日旆)의 용기는 함께 바다를 순행하네/ 누른 잎의 게림은 일찍이 삭막하더니/ 지금 상원(上園, 대궐 안에 있는 동산)에는 다시 봄경치 완연하네”(成宗十五年八月 車蓋幸東京頒赦 凡有奇才異能 隱滯丘園者 勅有司搜訪無遺 又收籍內外義夫節婦孝子順孫 旌表門閭 錫物段有差 時有敬順王入朝日 不來者已鮑背矣 有爲白衣作詩 獻內相王融云 九天光動轉星辰 日旆龍旗並海巡 黃葉鷄林曾索漠 烟花今復上園春).<sup>116)</sup>

위의 사료은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귀부하지 않고 은둔하던 구신라(東京) 노인이 후일 성종과 함께 동경(東京, 지금의 경주)에 간 왕융에게 2편의 회고시를 바쳐 그의 공을 기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는 없지만, 이는 또한 장차 신라계 세력과 광종대의 개혁을 주도했던 문신 관료가 정치 노선을 같이하는 동일 세력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왕융으로 대표되는 광종대의 문신 관료층과 신라계 세력 간에 정치적인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sup>117)</sup>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리하여 광종대에 등장한 신진 세력인 문신 관료들과 신라계 정치 세력 간에 서로 제휴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경종이 즉위하자 우선적으로 경종과 구신라 왕실의 상징적 존재인 김부와의 혼인을 성사시킴으로써 나름대로 자신들의 세력 부상의 기회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

116) 崔滋, 「補閑集」 上과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州府 人物條 및 「東文選」 卷19 “駕幸東京憲王內相融.”

117) 全基雄, 「高麗 景宗代の 政治構造와 始定田柴科의 성립 기반」, 「震壇學報」 59, 1985, p.59 ;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도서출판 혜안, 1996.

그러면 여기서 잠시 신라계 출신의 상징적 존재였던 경순왕 김부의 근황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김부는 일찍이 고려에 귀부한 이래 충남 보령의 성주사(聖住寺)에 은거하고 있었다. 충남 보령군의 승암산 성주사 사적기(崇巖山聖住寺事蹟記)에 나타나는 명문(銘文)의 내용을 살펴보자.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합할 즈음 김부대왕이 해서를 다스렸는데, 와서 상심하여 한탄해 하면서 말하기를 “대량혜화상은 나와 조상이 같은 성골이다. 그리고 성주선원은 우리 선조께서 지은 원찰이라” 하고 노비를 거느리고 와 살았다. 태조는 공주를 김부에게 장가보내고 벼슬과 토지를 내주고 삼도의 식읍을 주었다. 김부대왕은 여기서 생을 마치니 능과 영사가 지금 산 정상에 있다. 문성대왕에서부터 현안왕, 경문왕, 헌강왕을 거쳐 김부대왕(경순왕)에 이르기까지 11대이다(王太祖 統合三國時 金傳大王治海西來傷嘆曰 大郎惠和尚同祖聖骨也 聖住禪院 乃先朝所建願刹也 率宮奴來居之 王太祖以公主處之 賜爵土田 奉饋三道食邑 金傳大王終身于滋陵 基靈祠今在山頂矣 自文聖大王歷憲安景文王 憲康王至金傳大王十一代也).<sup>118)</sup>

위의 사료는 당시의 김부는 삼국 통합시 일찍이 고려에 귀부한 이래 충남 보령군에 있는 성주사에 은거하다가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그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고 정치권을 피하여 은둔한 것은 혜·정·광종대의 정쟁과 공신 숙청의 위협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신라계 출신에 대한 정치적 분규의 단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배려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추측컨데 그가 만약 중앙 정계에서 크게 활약하였다면 혜·정종 년간의 정변 그리고 광종의 대규모적인 숙청시에 제거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존재 자체가 당시 신라 출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며,<sup>119)</sup> 이러한 김부의 근황을 통해 필자는 당시 신라계 세력의 정치적 위상을 짐작

118) 「崇巖山聖住寺事蹟記」, 「考古美術」 9. p.9.

119) 張東翼, 「金傳의 冊上父誥에 대한 一檢討」, 「歷史教育論集」 3, 慶北大 歷史教育學會, 1982, p.60 및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153.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정치적 도약을 꿈꾸던 신라계 세력은 왕용 계열의 신진 문신관료들과 함께 신라계 세력의 상징적 존재였던 신라 왕실 김부의 딸과 경종과의 혼인을 추진한 듯하다. 그리하여 경종의 첫 번째 혼인이 성사되었는데,<sup>120)</sup> 이는 왕용으로 대표되는 광종대의 문신 관료층이 신라계 세력에 대해 베푼 최대한의 호의였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로 김부는 상부도성령(尙父都省令)으로 책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고려사」에 보이는 김부에 대한 상부 책봉과 관련한 사료이다.

정승 김부의 관작을 높여 상부(尙父)로 하고, 그에 관한 조서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김부는 대대로 경주에 살았으며…처음에 우리 태조가 이웃 나라들과 화목한 우호 관계를 맺을 때에 그대는 누구보다도 먼저 태조의 본의를 정확히 인식하였으며 얼마 후에 부마의 영예를 주었을 때에는 마음 속으로 곧 은혜에 보답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라가 통일되었고…이에 김부에게 상부(尙父) 도성령(都省令)의 칭호를 첨가하며 추증 순의승덕수절공신 칭호를 주고 훈봉은 그대로 두고 식읍(食邑)은 종래의 것과 합하여 1만호로 할 것이다(冬十月甲子 加政丞公金傳爲尙父制曰…金傳 世處鷄林…我太祖始脩睦隣之好 早認餘風 尋 頒駙馬之姻內酬大節 家國既歸於一通…加號尙父都省令 仍賜推忠順義崇德守節功臣號 勳封如故食邑 通前爲一萬戶 : 「高麗史」卷2, 景宗 卽位年(光宗 26年) 冬10月 甲子).

그런데 여기서 경순왕 김부의 상부 책봉을 주관했던 인물이 쌍기, 조익 이래 지공거를 지내면서 과거를 독점적으로 관장을 해왔던 광종대 개혁의 총수격 인물인 왕용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여기서 경종이 김부를 상부로 봉한 것은 그가 왕비의 아버지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배후에는 구신라 왕실의 고려 왕통 계승을 통하여 세력 부상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신라계 세력과 왕용으로 대표되는 광종대 문신 관료의 호응도 한 몫을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은둔하면서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김부가 경종의 즉위와 함

120) 「三國遺事」卷2, 金傳大王 “太祖之孫景宗卽 聘政丞公之女爲妃 是爲憲承皇后 仍封政丞爲尙父”와 「高麗史」88, 后妃1 景宗妃 獻肅王后 金氏傳.

게 자신의 딸을 경종의 제1비로 납비함과 동시에 상부 도성령으로 책봉되는 등 마침내 정치 표면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순왕 김부의 등장은 곧 신라계 정치 세력의 급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신라 6두품 계열의 지식인들이 고려의 정부 조직과 관료 체제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정치 주도 세력으로 대두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왕실 주변에서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신라계 세력의 움직임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sup>121)</sup>

이 밖에도 경종 당시 신라계 정치 세력의 대두를 엿볼 수 있는 예는 다음의 사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집정(執政) 왕선(王詵)을 외방으로 추방하였다. 왕이 일찍이 선조 때 참소를 당한 사람의 자손에게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니 드디어 서로 함부로 죽여 다시 억울한 일들이 생겨났다. 이때 왕선이 복수를 핑계로 삼아 태조의 아들인 천안부원랑군(天安府院郎君)을 교살하였으므로 이에 왕선을 귀양보내고 함부로 죽이고 복수하는 것을 금하였다(放執政王詵于外 王嘗許先朝被讒人子孫復讐 遂相擅殺復致冤號 及是詵托以復讐 矯殺太祖子天安府院郎君 於是貶詵 仍禁擅殺復讐 : 『高麗史』卷2, 景宗 元年(976) 11月 條).

즉 위의 사료에 의하면, 복수를 빙자하여 태조의 아들인 천안부원랑군(天安府院郎君)을 살해한 집정 왕선(王詵)을 추방했다는 것이다. 당시 왕선은 집정이란 표현으로 미루어 당시 최고의 정치적 실력자였다고 생각된다.<sup>122)</sup> 여기서 천안부원랑군이 태조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당대 최고의 실력자를 실각시킬 만큼 그가 중요한 인물이었을까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천안부원랑군이 누구인지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 천안부원랑군은 『고려사』 종실(宗室)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태조의 후비(后妃) 가운데 천안부원부인(天安府院夫人)이 나타난다.

121)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p.154~161.

122) 李泰鎮, 앞의 논문, 1972, p.17.

천안부원부인 임씨는 경주인이요 태수 임언(林彦)의 딸이다. 효성태자(孝成太子) 임주(琳珠), 효지태자(孝祗太子)를 낳았다(天安府院夫人林氏 太守林彦之女 生孝成太子琳珠孝祗太子 : 『高麗史』卷88, 后妃1, 天安府院夫人 林氏傳).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안부원부인은 두 아들을 두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천안부원랑군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바로 그의 외조가 경주 출신의 임언(林彦)인 셈이다. 그러므로 왕선의 추방은 곧 천안부원랑군의 외조(外祖) 세력인 신라계 정치 세력에 의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임언은 김부와 함께 고려에 귀부하지는 않았으나 천안부원부인 임씨의 아들인 천안부원랑군이 경종 초에 왕선에 의해 교살 당한 사건은 신라계 정치 세력에 의한 왕선의 퇴임을 불러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왕선의 추방과 관련하여 신라계 세력의 동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경종대의 정치세력 판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3왕후족(王后族) 중 황보씨를 중심으로 한 왕선의 세력과 왕용 계열의 신진 문신 관료 세력과 제휴한 김부 중심의 신라 계열과의 대결 구도였다. 이들 세력간의 충돌은 경종 원년 이전에 복수를 구실로 정적을 살해하던 왕선이 천안부원랑군을 교살하면서부터 격화되었고 이는 마침내 호족 공신 계열의 세력이 추방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던 것이다.

경종이 천조(踐祚)함에 이르러 구신(舊臣)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40여인일 따름입니다. 그 때 또한 해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는 모두 후생참적(後生讒賊)이라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천안·진주 두 낭군은 본래 황가(皇家)의 지엽(枝葉)입니다. 광종도 오히려 스스로 관용하여 법에 넘기지 않았는데 경종조에 이르러서는 족히 번병(藩屏)으로 삼을 것인데 오히려 권신의 적해(賊害)를 입어 지하의 원혼이 되니 종맹(宗盟)에 있어서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景宗踐祚 舊臣之存者 四十餘人耳 其時 亦有人遇害衆多 皆是後生讒賊 誠不足惜 唯天安鎮州二郎君 本皇家之枝葉也 光宗猶自寬容竟不置之於法 至景宗朝足爲藩屏 却被權臣之賊害 沒爲地下之冤魂 在於宗盟寧不痛惜 : 『高麗史』卷93 列傳 崔承老).

위 사료에서 최승로는 두 낭군(郎君) 외에 해를 입은 자를 모두 후생참적(後生讒

賊)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후생참적'이라 함은 광종대 실시된 과거에 의해 새롭게 등장했던 비신라계 혹은 최승로로 대표될 수 있는 신라계 정치세력과 정치노선을 달리하는 신진 세력으로서 광종의 개혁에 적극 가담하였다가 경종 즉위초의 복고적 정변의 와중에서 제거된 무리로 생각된다.<sup>123)</sup> 그리고 최승로는 해를 입은 자들 중 천안(天安)·진주(鎭州)의 두 낭군의 죽음에 대해 특히 애통하게 여겼는데, 특히 천안부원랑군(天安府院郎君)의 외가인 임언이 신라 6두품 출신의 유신(儒臣)이라는 사실은 같은 6두품 출신의 신라계였던 최승로가 천안부원랑군의 죽음을 그토록 애통해하는 까닭을 짐작케 한다.

이리하여 광종과 경종대에 걸친 정치적 파동을 겪는 동안 여초에 형성되었던 지배층 전반에 걸친 위축이 이루어진 듯하며, 이는 곧 새로운 정치 세력의 대두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물론 경종대의 복고적 정변 이후 다시 개국공신 계열의 인물이 등용될 수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살아 남은 구신이 40여 명뿐임을 감안한다면 그 세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 같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고려는 새로운 수습 안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경종이 '함부로 죽이고 복수하는 것을 금하였다(仍禁擅殺復讐)'<sup>124)</sup>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여

123) 後生讒賊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光宗改革에 적극 참여한 인물로 보는 견해(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p3~pp4)와 光宗代의 '後生'과 後生參賊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全基雄, 앞의 논문, 1985, p.38), 이외에도 '後生'을 光宗朝 이후 科擧에 의해 등용된 儒學者들 뿐 아니라 侍衛軍과 雜業 계통의 인물 등 非功臣系列의 群小豪族으로 보는 견해(金塘澤, 앞의 논문, 1981, pp.48~56), 光宗 말기의 대표적 정치세력을 '後生讒賊'으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여 "崔承老가 後生이라고 칭한 정치 세력의 한 부류로서 숙청에 앞장섰던 기회주의적 佞臣"으로 보는 견해(崔圭成, 「高麗初期 官僚體制와 政治擔當勢力의 變遷」, 『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1984, p.87), '後生'을 광종 이후 등용된 儒臣이나 하급관리, 과거급제자 일부로 보고 이들이 특히 勳臣·宿將 제거에 앞장섰기 때문에 '後生讒賊'으로 표현되었다는 견해(俞炳基, 앞의 논문, pp.58~59), '후생'을 구신 숙청에 앞장서고 신구서열을 무시하는 보통명사로 해석하여, 후생도 광종 말년에는 구신으로서 숙청될 수 있다고 하여 후생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鄭容淑, 「高麗 王室 族內婚의 展開와 變質」, 『斗溪李丙燾博士九旬記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p.209) 등이 있다.

기서 광종대에 숙청을 모면하고 살아남은 잔여 호족 공신계열의 세력은 왕실의 외척으로서 광종대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황주 황보씨, 충주 유씨, 정주 류씨의 3왕후족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그들의 세력을 되찾고자 하였으며,<sup>125)</sup> 한편 격동의 시기를 거친 신라계 정치세력으로서도 최승로의 상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지배층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게 된 것이다.

집정 왕선이 추방된 경종 원년 11월 이후의 정치 사회는 광종대 개혁의 성과가 계승되는 가운데 과거가 재개되면서 관료층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이어서 경종 5년에 이르면 최지몽의 재등장과 왕승(王承)의 모역 사건으로 잔존 호족 공신 세력이 축출됨으로써 문신 관료층들이 드디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듯이 경종대의 정치적 성격은, 광종의 전제적 왕권의 통제에서 풀려난 여러 정치 세력이 각기 광종대의 신진 문신 관료와 제휴한 신라계 세력과 황보씨를 중심으로 하는 3왕후족 외척 세력으로 양분되어 대립하였다. 그러나 경종의 효과적인 수습책에 의하여 즉위 초의 혼란이 안정되면서 광종 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계승되어 급기야 신라계 문신 관료들이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광종대의 문신관료로서 경종대까지도 건재하였던 인물로는 조익을 비롯하여 왕승(王丞) 모역 사건 이후 재등장한 무장 공신 세력이 퇴진한 이후 대광(大匡) 내의령(內議令) 최지몽, 대광 내의령 판총(判總) 한림원(翰林院) 왕유, 정광(正匡) 한림학사 최승로, 내봉령(內奉令)을 거친 바 있는 광록대부(光祿大夫) 좌승(大丞) 한림학사 김정언(金廷彦), 성종 2년에는 좌집정(左執政)으로 나타나는 이몽유(李夢遊), 그리고 성종대에 크게 활약한 유방헌(柳邦憲), 최량(崔亮), 최섬(崔暹), 백사유(白思柔) 등이 있다. 이들은 신라 6두품 계열이거나 이에 동조하는 儒臣으로서 대부분이 과거 출신인데 경종대에 와서 그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성종의 즉위와 더불어 성종의 구언(求言)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였던 것이다. 즉 이들 세력은 잔존 호족 세력인 외척 세력을 정치 일선에서 추방하고 성종을 맞이하여 새로운 정치 형태를 제시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여 고려 사회의 기틀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124) 『高麗史節要』卷2 景宗 元年 11月條.

125) 全基雄, 앞의 논문, 1985, p.31.

## 2. 成宗代의 官制改編과 신라계 정치세력

경종의 뒤를 이어 성종이 즉위하였다. 성종대는 국초와 같이 호족들간의 반목과 대립의 시대도 지났고 광종에 의한 개혁의 소용돌이도 지난 뒤였기 때문에, 모든 정책도 유교 정치 이념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중앙 집권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던 시대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에서 3성 6부제(三省六部制)가 처음으로 시행된 때는 성종 원년에 성종의 구언(求言)과 관련한 조서(詔書)가 나온 후인 성종 2년 5월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으로 3성(三省) 6조(六曹) 7시(七寺)를 설치하였다(始定三省六曹七寺 : 『高麗史』卷3, 成宗2年 夏5月).

위의 내용처럼 『고려사』에서는 간략하게 기술함으로써 관제의 개혁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장공신 세력은 점차 퇴조를 보이면서 탁월한 정치적 경륜과 학문적 식견을 겸비한 신라 6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종대의 관제 개편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126)</sup>

성종대의 신라계 정치세력을 살피기 위하여는 새로이 정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신라 6두품 출신이거나 혹은 그 계열에 속하는 유학자군(儒學者群)을 검토해야 한다. 신라계 정치세력으로서 성종대의 관제 정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지몽, 최승로, 최량, 이몽유(李夢遊), 왕용, 이양(李陽), 김심언(金審言), 최섬, 백사유(白思柔), 유방헌(柳邦憲)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신라계 세력으로서 주목 대상이 되는 인물은 성종의 배향공신(配享功臣)인 최승로이다. 그는 최지몽의 뒤를 이어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됨으로써 성종 전반기의 정치를 주도한 신라 6두품 계열의 유학자 출신이었다. 최승로는 비록 개국공신은 아니었으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라가 고려에 병합되던 초창기부터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고려에 사관(仕官)한 고려 초기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126)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p1~19 ;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p.156.

그는 학사직을 비롯하여 어사도성(御事都省, 뒤의 상서성)의 선관어사(選官御事)를 거쳐 성종 초년에 부수상직인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가 되었다가, 수상인 내사령(內史令)인 최지몽이 죽자 문하시중으로서 수상직을 물려 받았다.

다음은 성종이 즉위 초년에 내린 교서의 일부이다.

임금의 덕은 오직 신하들에게 달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내가 새로이 국무를 총괄하게 됨에 따라 혹 잘못된 정치가 있을까 걱정하노니 중앙 관리로서 5품 이상 되는 자들은 각각 글을 올려 현행 정치의 득실을 논하라(制曰 后德惟臣古今所同 朕新總萬機 恐有闕政 其京官五品以上 各上封事 論時政得失 : 『高麗史』卷3, 成宗 元年 夏 6月 甲申).

위 사료에서 보이고 있는 성종의 구언(求言)에 따라 최승로는 시무 28조로 알려지고 있는 긴 상서문을 올려 성종의 정치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성종은 관제를 정비함에 있어 그의 의견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할 정도로 최승로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성종초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린 것은 이와같이 정치적으로 유학자 문신관료층의 우위가 확립된 가운데 그들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정치 이념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최승로는 성종 8년(989)에 사망하였는데, 따라서 그는 성종대 전반기의 관제 정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sup>127)</sup>

최승로의 출신 성분이 6두품임을 감안해 볼 때 그의 정치 사상은 마땅히 반골품적(反骨品的) 성향을 보여야 할 것이나 그의 시무책(時務策)에 의하면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귀족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철학<sup>128)</sup>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27) 崔承老의 사망을 계기로 한 정치적 세력의 변동에 대하여 河炫綱은 최승로를 중심으로 한 신라적 세력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던 成宗이, 최승로가 사망한 뒤에 西京 경영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사실에 착안하여, 그 이후에 新羅勢力에 의해 억눌렸던 西京勢力이 대두했다고 보고 있다(河炫綱, 「高麗西京考」, 『歷史學報』 35·36 합집, 1966, pp.156~163).

128) 李基白, 「崔承老와 그의 政治思想」, 앞의 책, 1993, p.172.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최승로가 구상하는 새로운 지배층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최승로는 신라 6두품 계열의 귀족으로서 고려에 사관(仕官)하여 이미 훈구세력화한 구세력에 해당하는 인물이니 만큼 이러한 그의 성격이 잘 반영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그가 추구했던 새로운 지배층은 최승로 자신을 포함한 신라의 옛 지배층 및 빈료(賓僚), 조사(朝士), 조신(朝臣), 현사(賢士) 등으로 구성되는 광범한 공신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이는 그가 올린 상서문 중 개국 공신들의 자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sup>129)</sup>

이는 그가 신라 귀족 출신으로서 제 공신 세력과 연결되는 데서 오는 최승로 자신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광종의 투화인 및 과거를 통해 새로이 등장하는 신진사인(新進士人)에 대한 우대 정책을 경험한 데서 오는 정치적 반동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최승로가 신라 6두품 계열의 인물이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그의 시무책은 자연히 성종 초기의 지배 세력으로 최승로 자신을 포함하는 구신라계의 인물이 대두<sup>130)</sup>하게 된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최승로와 마찬가지로 신라 6두품 계열에 해당되는 최량에 대해 살펴보자.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최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최량은 경주 사람이니 성품이 관후하고 글을 잘 지었다. 광종 때에 급제하여 공문박사(功文博士)로 임명되었다. 성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그를 불러다가 사우(師友)로 삼았고 즉위하자 드디어 등용하였는데…얼마 후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임명하였다가 내사시랑(內史侍郎) 겸 민관어사(民官御事), 동 내사문하평장사(內史門下平章事) 감수국사(監修國史)로 승진시켰다. 십사년에 죽으니 왕이 매우 슬퍼하였다.…성종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崔亮慶州人 性寬厚能屬文 光宗朝登第爲功文博士 成宗在潛邸 引爲師友 及卽位遂擢用…乃命復職未幾拜門下侍郎 遷內史侍郎兼民官御事 同內史門下平章事監修國史 十四年卒王痛悼…配享成宗廟庭 : 「高麗史」卷93, 列傳 崔亮傳).

129) 「高麗史」卷93 列傳 崔承老.

130)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p.1~19.

위의 사료에 의하면 최량은 성종대의 배향공신으로 경주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계 정치 세력에 속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성종은 즉위 이전부터 최량과 사우 관계에 있었으며, 성품이 관후한 학자 출신으로 말이 적고 결단을 잘하며 대대로 유학을 업(業)하였다고 칭송하고 있다. 학자로 출세한 그는 광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공문박사(攻文博士)가 되었다가 성종에 의하여 중용되어 관직이 내사문하평장사(內史門下平章事)에 이르렀다. 최량은 비록 성종 14년에 죽지만 성종의 유교 정치 이념에 입각한 체제 정비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주로 성종대에 활약하던 인물이며, 최승로와 함께 성종대 특히 그 전반기를 특징지워 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신라 6두품 출신은 아니지만 같은 계열에 속하는 인물로 알려진 성종대의 배향공신 이몽유(李夢游)는 불행히도 그의 출신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사』에서는 그와 관련한 다음의 글이 나타난다.

李夢游에게 명하여 중앙 및 지방 관청에서 주달하는 글과 통첩, 공문 양식을 제정하게 하였다(命李夢游 詳定中外奏狀及行移公文式 : 『高麗史』成宗 6年 8月 乙卯條).

위의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몽유는 내외주장(內外奏狀)과 행리공문(行移公文)에 관한 식을 정하는 등 큰 공적을 남겼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성종의 유교적 제도 정비와 밀착되어 있던 신라계 세력과 정치적 이해 관계와 노선을 같이한 인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내사문하성의 재상직에 있었던 인물인 최지몽(崔知夢)에 대해 살펴 보자. 그는 앞 장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광종 말년에 폄출(貶黜)되었다가 경종대에 복권된 인물이다. 최지몽은 성종이 즉위하던 해에 좌집정(左執政)·수내사령(守內史令)·상주국(上柱國)으로 임명되었는데, 이후 그가 81세로 성종 6년에 사망할 때까지 내사령으로서 최고의 직위를 누렸다. 여기서 최지몽은 비록 개국 공신이긴 하지만 무장(武將) 공신 계열의 인물이 아닌 학자 출신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성종대에 이르러 무장 공신 세력보다는 학문과 정치적 경륜을 갖춘 유학자 출신이 우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지몽이 죽자 그 뒤를 최승로가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종대의 체제 정비와 관련하여 당시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에 대한 성종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성종대에 신라계 유학자 세력이 활약한 관부로는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맡은 내사문하성의 성랑(省郎)과 어사대(御史臺)가 있는데, 이 곳에서 복무한 신라계 정치 세력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최량, 이양, 김심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최량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양과 김심언을 주로 살피기로 한다.

먼저 어사대에서 좌보궐(左補闕) 겸 지기거주(知起居注)였던 이양(李陽)부터 살펴보자. 이양은 성종 7년(998)에 중국의 경전에 입각하여 농업에 관한 절차나 의식을 행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sup>131)</sup> 이 때 이양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성종이 전폭적으로 찬동한 것으로 보아 그도 역시 성종의 유교적 정치 이념과 부합되는 일면이 있어 신라계와 노선을 같이한 인물로 보이나 그의 출신은 알 수 없다.<sup>132)</sup>

김심언(金審言)은 『고려사』 열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시초에 상시(常侍) 최섬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최섬이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꿈에 심언(審言)이…심히 이상히 여기고 자기 딸을 그의 처로 주었다. 성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고 누차 승진하여 우보궐(右補闕) 겸 기거주(起居注)에 이르렀다. 성종 9년 7월에 봉사(封事)를 올렸더니 왕이 교서를 내리고 칭찬하였다(初從常侍崔暹學 暹坐寐夢審言…心異之妻以女 成宗朝登第 進累右補闕兼 起居注 九年七月上封事 王下教褒獎 : 『高麗史』 卷93, 列傳 金審言傳).

위의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6두품 출신으로 여겨지는 최섬의 사위라는 사실이 그의 열전에서 특기 사항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성종때 급제한 후 어사대에서 우보궐 겸 기거주를 지냈으며 성종에게 봉사(奉事)를 올려 성종의 칭찬을 받은 바 있는데, 성종 및 최승로의 정치 이념과 일치하고 있어 그 역시 신라 6두품 계열에 속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133)</sup> 이 외에도 최행언(崔行言)은 성종의 제3비인 연창궁부인(延昌宮夫人)을 납비한 바 있는데, 최언위의 아들인 행귀, 행종(行宗)과 같은 형제일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sup>134)</sup>

131) 『高麗史』 卷3, 成宗 7年(988) 봄 2月.

132)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p.11~12.

133)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12.

신라계 유학자 출신의 정계 진출과 관련하여 중요시 다뤄야 할 직책이 바로 지공거가 아닐까 한다. 성종대에 지공거로서 과거를 주관한 신라계 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왕융, 최승로, 이몽유, 백사유, 최섬, 유방현 등을 꼽을 수 있다.<sup>135)</sup>

다음의 <표 2>는 성종대의 과거제 실시 상황과 지공거를 지낸 인물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표 2> 高麗의 科擧 施行

| 區分<br>時期 | 知貢學·<br>同知貢學        | 選拔人員 |      |    |      | 區分<br>時期 | 知貢學·<br>同知貢學 | 選拔人員 |     |    |     |
|----------|---------------------|------|------|----|------|----------|--------------|------|-----|----|-----|
|          |                     | 製述業  | 明經業  | 雜業 | 計    |          |              | 製述業  | 明經業 | 雜業 | 計   |
| 成宗 2     | 王 融                 | 5    |      |    | 5    | 成宗 8     | 王 融          | 18   | 1   | 2  | 21  |
| " 2      | 崔承老,<br>劉彦儒<br>의 2인 | 3    | 1    |    | 4    | " 10     | 白思柔          | 7    | 3   |    | 10  |
| " 3      | 王 融                 | 3    |      |    | 3    | " 12     | 崔 暹          | 10   | 3   | 3  | 16  |
| " 4      | "                   | 3    |      |    | 3    | " 13     | 王 融          | 8    | 9   |    | 17  |
| " 5      | 李夢游                 | 3(?) | 1(?) |    | 4(?) | " 14     | 白思柔          | 5    | 3   |    | 8   |
| " 6      | "                   | 1    | 1    | 5  | 7    | " 15     | 崔 暹          | 7    | 6   |    | 13  |
| " 7      | 王 融                 | 4    |      | 2  | 6    | " 16     | 柳邦憲          | 5    | 7   | 27 | 39  |
| 소 계      |                     |      |      |    | 32   | 소 계      |              |      |     |    | 124 |

\*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4, p.17 참조.

<표 2>에 의하면 성종 9년과 11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과거가 시행되고 있

134) 『高麗史』 卷88, 后妃1, 元和王后 崔氏傳 “원화왕후 최씨는 성종의 딸이다…현종 8년 12월에 왕후의 외조부 최행언에게 상서좌복야를 추증하였다(元和王后崔氏亦成宗之女…八年十二月 贈后外祖崔行言尙書左僕射).”

135)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p.15~18.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도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성종 8년을 기점으로 과거제 실시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종 8년 이후 급제자가 4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성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sup>136)</sup> 이는 성종대의 관제 개편과 관련하여 관직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뽑을 필요성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공거를 역임한 인물 중에는 왕용, 최승로, 이몽유, 최섬 등과 같이 신라계 세력과 연결되는 유학자 계통의 인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지공거들 모두가 성종대의 정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당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지공거에 대하여 은문(恩門) 또는 좌주(座主)라 하여 문생(門生)의 예를 지켰다고 한 것을 보면, 지공거를 역임한 신라계 인물은 비록 급제자가 신라계 인물이 아닐지라도 그들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요컨대 성종 초기에는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계 정치 세력이 요직을 차지하는 등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광종대의 무자비한 숙청 작업으로 강력한 호족과 개국 공신 계열이 도태당한 힘의 공백기를 기회로 새로운 정치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다. 물론 성종의 시대 중반에 접어들어 최승로가 죽자 근기(近畿) 출신의 개국공신·호족 계열인 서희(徐熙), 이지백(李知白), 박양유(朴良柔) 등과 같은 세력이 정계의 수뇌부로 등장하기도 했다.<sup>137)</sup> 그러나 이것이 신라계 유학자 출신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최승로와 정치적 맥락을 같이 했던 최량이 성종 12년 제3인자에 해당하는 문하시랑을 지냈다든지 경종대에 내의성(內議省)과 한림원(翰林院)을 총괄하던 왕용이 성종 16년에 평장사를 지낸 것 등에서 신라계 인물들이 계속하여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38)</sup>

---

136)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173.

137)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p.10~13.

138) 兪炳基, 「高麗 初期 權力 構造의 分析的 研究」, 『全州史學』 5, 1996, pp.28~31.

### 3. 舊新羅 왕실의 동향과 신라계 정치 세력

지금까지 신라계 정치 세력이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귀부한 이래 자신들의 생존과 지위 상승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급기야 성종대에 이르러 그 전반기를 주도하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해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신라계 정치 세력의 동향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즉 성종대에는 신라 6두품 계열의 지식인들이 고려의 정부 조직과 관료 체제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정치 주도 세력으로 대두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신라 왕실의 후손을 고려의 왕위에 앉히려는 신라계 세력의 움직임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한 전기웅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다.<sup>139)</sup>

그러면 지금부터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구신라 왕실의 동향과 신라계 정치 세력이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고려사」와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현종의 출생 관련 내용이다.

◦ 신성왕태후 김씨는 신라 사람이니 잡간(匝干) 김억렴(金億廉)의 딸이다. 신라왕 김부가 사신을 고려에 보내 항복할 뜻을 표시하였더니…김부가 회답하기를 “나의 백부 억렴(億廉)의 딸이 있는데…”라고 하였다. 그래서 태조는 드디어 그에게 장가들어 안종(安宗)을 낳았다.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신성왕태후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神成王太后金氏新羅人 匝千金億廉之女 新羅王金傅 遣使請降…傅報曰 我伯父億廉有女 太祖遂取之生安宗 顯宗即位追諡神成王太后 : 「高麗史」卷88, 后妃1, 神成王太后 金氏傳).

◦ 처음 신라가 항복하였을 때…왕은 “나의 백부 잡간 억렴이 지대야군사(知大耶郡事)로 있는데, 그의 딸이 덕행이 훌륭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이 외에는 집안을 받들 만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태조가 마침내 그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사람이 곧 현종의 아버지로서, 후에 안종으로 추봉되었다(初新羅之降也 答曰 我伯父億廉匝干 知大耶郡事 其女子德容雙美 非是 無以備內政 太祖遂取之生子 是顯宗之考 追封爲安宗 : 「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 敬順王 9年(935) 12月).

위 사료는 구신라 왕실의 외손인 현종이 고려의 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

139)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p.154~161.

고 있다. 즉 현종의 아버지인 안종(安宗) 옥(郁)은 경순왕의 백부인 김억렴의 딸인 태조의 제5비 신성왕후의 소생이다. 그리고 당시의 안종은 신라 왕족과 고려 태조의 왕후 소생으로서 왕위 계승이 유력했던 인물중의 하나였으므로<sup>140)</sup> 신라 왕족을 비롯한 신라계 정치 세력의 기대와 희망을 한몸에 모으는 존재였다. 따라서 옥은 다른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외가, 즉 모후인 신성왕후와 비부(妃父)인 김억렴 및 그 주변 신라계 인물들의 영향과 보호 속에서 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종은 건국 세력과 무장 공신 등 통일 전부터 활약하던 인물들이 득세하던 고려 초의 상황에서 태조 사후 비부(妃父) 세력 간의 경쟁과 혜·정종대의 혼란, 공신뿐만 아니라 왕족 인척들도 죽임을 당하였던 광종대의 숙청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미 언급한 김부의 동정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는 국초의 혼란기에 신라계 세력이 정치 표면에 나서지 않고 은인자중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광종대를 지나며 위협적이던 무장공신(武將功臣)과 경쟁적인 다른 왕자들이 이미 대부분 도태되었고,<sup>141)</sup> 경종의 즉위와 함께 김부가 제1왕비 헌숙왕후(獻肅王后) 김씨를 납비(納妃)하고 상부(尙父)로 책봉되는 등 구신라 왕실의 지위가 급상승하게 되었다. 성종대에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계 지식인 출신이 크게 중용되어 성종 전반기의 정치를 주도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지금까지 은둔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신라계 왕실로 하여금 왕위 계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징조가 아닐 수 없었다.

140) 太祖의 后妃 가운데 王后는 6명 뿐으로 1妃는 貞州柳氏, 2妃는 羅州吳氏, 3妃는 忠州劉氏, 4妃는 黃州皇甫氏, 5妃는 신라왕실 金氏, 6妃는 貞州柳氏 출신이다. 惠宗은 2妃인 羅州吳氏 소생이며, 定宗과 光宗은 3妃인 忠州劉氏, 景宗은 光宗과 黃州皇甫氏 출신의 大穆王后, 成宗은 태조의 아들인 戴宗과 黃州皇甫氏 출신의 宣義王后, 穆宗은 景宗과 黃州皇甫氏 출신의 獻哀王后, 顯宗은 태조의 아들인 安宗과 黃州皇甫氏 출신의 獻貞王后 사이의 소생이다. 顯宗대까지 역대의 왕은 왕후 소생의 왕자 또는 왕후 소생의 자녀 사이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왕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와 같은 왕위 계승의 양상을 비추어 볼 때, 제 5왕후 소생의 安宗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력한 후보자이기도 하였다.

141) 太祖死後 치열한 왕위계승전을 겪는 동안 惠·定宗代에는 廣州院君(王規勢力)이, 光宗代에는 興化君(惠宗의 子), 慶春院君(定宗의 子), 孝隱太子(平州勢力) 등이, 景宗初에는 鎭州·天安 두 郎君이 각각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면 성종대부터 현종의 즉위와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신라계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고려사』 권88 경종 헌정왕후(獻貞王后) 황보씨(皇甫氏)전과 『고려사』 권90 대종(戴宗) 옥(旭)전에 의하면, 현종의 어머니인 헌정왕후 황보씨는 태조의 제4비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 소생인 대종 옥과 제6비 헌덕왕후(貞德王后) 유씨 소생의 선의왕후(宣義王后) 유씨 사이에 태어나 언니인 헌애왕후(獻哀王后)와 함께 경종의 제4비가 되었으며, 성종의 친누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현종의 출생과 관련한 『고려사』의 기록이다.

헌정왕후 황보씨는 또한 대종의 딸이다. 경종이 죽자 왕륜사 남쪽에 있는 자신의 집에 나와서 살고 있었다...이 때에 안종의 집이 왕후의 집과 가까이 있었던 까닭으로 서로 왕래하다가 간통하여 임신하였으나...아들을 낳고는 그만 죽고 말았다. 성종이 명하여 保姆를 택하여 그 아이를 기르게 하였는데, 이 아이가 현종이 되었다(獻貞王后皇甫氏亦戴宗之女 景宗薨出居王輪寺南私第...時安宗第與后第相近...免身以卒 成宗命擇保姆以養 其兒爲顯宗 : 『高麗史』 卷88, 后妃1, 獻貞王后 皇甫氏傳).

위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정왕후는 경종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지 못한 채 사저에 나와 홀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녀가 왕위 계승자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존재이기도 하였는데,<sup>142)</sup> 마침내 신라계 숙부(叔父) 옥(郁)과 사통하여 대량군(大良君=현종)을 낳았던 것이다. 현종의 출생으로 인하여 신라계 정치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던 성종대 전반기의 상황에서 현종의 즉위 가능성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그러나 성종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근기(近畿) 지방 출신의 호족 공신 계열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점차 현종대의 지배 세력으로 성장해 가게 되었다.<sup>143)</sup> 이에 대한 신라계 정치 세력의 동향과 관련하여 헌정왕후와 안종의 결합, 그리고 현종의 출생과

142) 이 때 獻哀王后는 景宗과의 사이에서 穆宗 송(誦)을 낳았으며, 成宗은 아직 자식은 없으나 출산의 가능성은 있었다. 따라서 獻貞王后가 아들을 출산한다고 해도 바로 왕위계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왕위계승의 유력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143) 李基白, 앞의 논문, 1974, p.161.

정이 신라계 자신들의 생존과 지위 상승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구된 계책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한 견해는 매우 흥미롭게 여겨진다.<sup>144)</sup> 즉 신라계 세력은 자신들의 안위와 지위를 확고히 보장받기 위하여 구신라 왕실 후손이 고려 왕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종과 현종의 주위에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락을 실천에 옮기는 일단의 신라계 귀부인(歸附人)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에 보이는 현종이 출생한 후 즉위할 때까지의 일련의 사료를 정리한 것이다.

• 성종 11년 7월, 왕후가 안종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가인(家人)이 땀감 나무를 들에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 불길의 바야흐로 크게 일어나므로 백관이 달려가 불을 끄고 성종도 역시 급히 가보니 가인이 드디어 사실을 고하였다. 이에 안종을 유배하였다. 왕후는 부끄러워 울다가 집으로 돌아 오는데 겨우 문에 이르자 태동이 있어 문앞에 앞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부여잡고 아들을 낳고는 그만 죽고 말았다. 성종이 명하여 보모(保姆)를 택하여 그 아이를 기르게 하였는데, 이 아이가 현종이 되었다(成宗十一年七月 后宿安宗第 家人積薪于庭而火之 化方熾百官 奔救成宗亦往問之 家人遂以實告 乃流安宗 后慚限哭泣比還 其第纔及門胎動 攀門前柳枝免身以卒 成宗命擇保姆以養其兒爲顯宗 : 「高麗史」卷88, 后妃1, 獻貞王后 皇甫氏傳).

• 처음에 옥(郁)을 귀양보내던 날에<sup>145)</sup> 황보씨가 아이를 낳고 죽었으므로 성종이 보모를 선택하여 그 아이를 기르게 하였다. 아이가 두 살이 되었을 때부터 보모는 항상 '아버지'라는 말을 가르쳤다. 어느 날 성종이 불러 보았더니 보모에게 안기어 들어간 아이가 성종을 우러러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릎 위로 올라가 옷깃을 만지면서 또 다시 '아버지' 하고 불렀다. 성종이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매우 그리워 하는구나" 하고 드디어 사수(泗水)에 보내어 옥에게 돌려 주니 이 아이가 현종이 되었다(初流郁之日 皇甫氏免身而卒 成宗爲擇傳姆養其兒 兒至二歲 姆常誨之曰爺 一日成宗召見姆 抱以入兒仰視成宗呼云爺 就膝上捫衣襟又爺 成宗憐之下淚曰 此兒深慕父也 遂送泗水以歸郁 是爲顯宗 : 「高麗史」卷90, 宗室1, 安宗 郁傳).

144) 全基雄, 앞의 논문, 1993, p.158.

145) 「高麗史」卷3, 成宗 11年 秋7月朔 “宗실 郁을 사수현(경남 사천)으로 유배하였다(流宗室 郁泗水縣).”

• 옥은 문사를 잘하고 또 지리에 정통하였는데 일찍이 비밀리에 金 한 주머니를 현종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금을 술사에게 주고 나를 우리 현(縣) 성황당 남쪽 귀룽동에 장사하되 반드시 옆에서 묻게 하라”고 하였다. 성종 15년에 옥이 편소(貶所)에서 죽으니 현종이 그 말과 같이하여 매장하려 할 때 복매(伏埋)하기를 청하니 술사가 말하기를 “어찌 그리 급한가”라고 하였다. 이듬해 2월에 현종이 서울로 돌아왔다(郁工文辭又精於地理 嘗密遺顯宗金一囊曰 我死以金贈術士 令葬我縣城隍堂南歸龍洞 必伏埋 成宗十五年郁卒于貶所 顯宗如其言 將葬請伏埋 術士曰何大忙乎 明年二月還顯宗京 : 『高麗史』卷90, 宗室1, 安宗 郁傳).

• 현애왕후가 김치양과 더불어 간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써 왕위를 이으려 하였다. 이 때에 현종은 대량원군으로 있었는데 태후가 이를 미워하여 억지로 승려로 만들어 삼각산 신혈사에 우거토록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신혈소군이라고 불렀다. 태후는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하루는 내인(內人)을 시켜 술과 떡을 보내면서 모두 독약을 넣었다. 내인이 절에 가서 소군(小君)을 만나 친히 음식을 권하여 먹이려 하였으나 절의 어떤 중이 문득 소군을 땅굴에 숨겨놓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소군이 산중에 놀러 나갔으니 어찌 간 곳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내인이 돌아간 뒤에 음식을 뜰에 흩어 버리니 오작(烏雀)이 먹고는 곧 죽었다(與金致陽通而生子 欲以其子嗣王位 時顯宗爲大良院君 太后忌之強令出家 寓居三角山神穴寺 時稱神穴小君 太后屢遣人謀害 一日使內人 遺以酒瓶皆和毒藥 內人到寺 求見小君 欲親觀食 寺有僧輒匿小君於地穴中 給之曰 安知去處耶 及內人還散之 庭中烏雀食而即斃 : 『高麗史』卷88, 后妃1, 獻哀王后 皇甫氏傳).

• 왕이 또 어느 날 닭 우는 소리와 다듬이 소리가 들려 오는 꿈을 꾸고 술사에게 물었다니 술사가 속담으로 해몽하기를 “닭울음은 꼬끼요(高貴位)니 높은 자리에 오를 징조이고, 다듬이 돌이 울린 것은 이는 가까운 것을 뜻하니(어근당어근당) 이 꿈은 곧 왕위에 오를 징조이다”라고 하였다(又夢聞雞聲砧響 問於術士 以方言之曰 雞鳴高貴位 砧響御近當 是卽位之兆也 : 『高麗史』卷4, 顯宗 卽位年).

• 유의(兪義) 등이 신혈사에 이르니 그 절의 중들이 간당들이 보낸 자가 아닌가 의심하여 현종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다. 유의 등이 그 분을 왕으로 맞이하려 온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마침내 그를 모시고 돌아왔다(兪義等至寺 僧疑爲姦黨所遣 匿不出 兪義等具道所以迎立之意 遂奉以還 : 『高麗史』卷94, 列傳 皇甫兪義傳).

위의 사료에 점술사, 가인(家人), 보모, 지리 술사(術士), 신혈사(神穴寺) 승려 등으

로 나타나는 안종과 현종을 보호하면서 구신라 왕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들을 경순왕의 고려 귀부와 함께 고려에 들어온 귀부 신라인으로 보고 바로 이들이 구신라 왕실의 고려 왕위 계승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존과 지위 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꾸민 계책이었다는 주장은<sup>146)</sup> 매우 흥미롭게 여겨진다.

당시 신라계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장치는 바로 신라계 인물을 고려의 국왕으로 왕위를 계승케 하는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라계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태조의 왕자인 안종에게 희망과 기대를 모으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량원군(현종)이 출생하였고 결국 현종이 즉위함으로써 신라계 세력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경순왕의 귀부 이후 신라계 지식층이 고려 정치 사회에서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고 신라 왕실의 외손인 현종이 즉위하기까지의 과정은 신라계 세력의 생존과 지위 상승을 위한 집념어린 노력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47)</sup>

이와 관련하여 훗날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金富軾)은 그의 사론(史論)에서 현종의 고려 왕통 계승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경순왕이 태조에게 귀순한 것은 비록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가상한 일이었다. 그 당시에 만약 목숨을 걸고 태조의 군사와 싸워서, 힘이 다하고 형세가 곤궁하여졌다면, 필히 그의 일족은 멸망하고, 무고한 백성들에게도 해가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나라의 창고를 봉하고, 군현을 기록하여 태조에게 귀의하였으니, 그가 고려에 세운 공로와 백성들에게 입힌 은덕이 매우 크다할 것이다. …지금 신라의 공덕은 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것이다. 우리 태조는 비빈이 많았고, 그의 자손들 역시 번창하였는데도, 현종은 신라의 외손으로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를 계승한 자들이 모두 그의 자손이었으니, 어찌 위와 같은 음덕의 보답이 아니겠는가(論曰 … 若敬順之歸命太祖 雖非獲已 亦可嘉矣 向若力戰守死 以抗王師 至於力屈勢窮 則必覆其宗族 害及于無辜之民 而乃不待告命 封府庫籍郡縣 以歸之 其有功於朝廷 有德於生民 甚大 今新羅功德 過於彼遠矣 我太祖 妃嬪衆多 其子孫亦繁衍 而顯宗自新羅外孫 卽寶位

146) 全基雄, 앞의 논문, 1974, p.160.

147) 全基雄, 앞의 논문, 1974, p.161.

此後繼統者 皆其子孫 豈非陰德之報者歟 : 『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 敬順王 9年 12月).

이렇듯이 김부식은 경순왕의 귀부를 극구 칭송하면서 현종의 즉위로 인하여 고려의 왕통이 신라계로 이어지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고려 중기에 이르러 이러한 역사 서술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고려 초기 이래로 신라계 정치 세력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의지와 그들이 이룩한 성취에 대한 예찬인 것이다.

## V. 맺 음 말

필자는 고려 태조에서 성종대에 이르는 고려 초기 사회를 주도한 정치 세력 중에서 특히 신라계 정치 세력을 주목하고 이들이 신라가 멸망한 뒤에도 고려의 정치 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하여 나아가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과 요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신라의 귀부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 즉 고려와의 친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의 모색 과정을 거친 후 신라 지배층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귀부가 이루어졌다는 점, 신라 왕경(王京)의 왕실, 귀족, 백관, 사서(士庶)가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집단 이주하여 그 주민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은 김부, 김억렴, 김일, 김인운, 김유렴, 임언, 최행언, 평준, 연예 등과 같이 고려 왕실과의 통혼을 통하여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얻거나 최언위, 김악, 최승로, 손소, 이환추, 구죽달, 유훈률 등과 같이 학문과 행정 실무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 정치 사회에 광범위하게 편입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신라의 귀부는 후삼국(後三國)의 위기 상황에서 신라 지배층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적극적인 자구책의 일환이었음을 밝혔다.

이렇게 고려에 유입된 신라계 세력은 고려 초기의 왕위 계승전과 광종대의 개혁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자 하였다. 헤·

정·광종대를 거치면서 신라계 정치 세력은 세력 부상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특히 신라계에 혈연적으로 가까웠던 고려 왕실의 친신라적 분위기와 광종의 유교적 문신 관료 확보 노력에 따라 적어도 광종 7년까지는 꾸준히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그리하여 광종대의 신라계 세력은 정계에 다수 포진되었는데, 여기에는 손소, 김약, 최지몽, 최승로, 최행귀 등과 같은 이미 훈구화된 신라계 세력 뿐만 아니라 최섬, 진공, 최광범, 김책, 최거업, 최량 등과 같은 광종대 개혁에 편승하여 과거를 통해 새로이 진출하는 신진 신라계 세력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결집하여 정치 세력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광종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정계에서 신라 출신 유학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광종 7년 이후로는 화사(華士), 남북용인(南北庸人), 후생(後生) 등 신진 세력에게 주도적 위치를 빼앗겨 광종 말년의 공신 숙청의 시대를 맞아 촉망되던 신라계의 인물들이 도태되는 것을 보면서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라계 정치 세력의 불만은 바로 최승로의 상서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광종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과거를 통하여 신라계 세력이 기용되어 고려 관료 사회에 포진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또한 혈연적으로 광종이 가진 친신라적 분위기로 볼 때, 정치 개혁의 와중에서도 신라계 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광종대를 단순히 신라계 세력의 후퇴기로 볼 것이 아니라, 고려 관인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던 신라계 세력이 앞으로 다가올 자신들의 도약을 기약하며 그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던 내재적(內在的)으로 성장하던 시기로 보았다.

경종대에는 공신 계열의 인물이 복권되어 '복고적 정변'을 통해 세력 만회를 꾀했으나 광종대 입었던 타격에서 회복되지 못하였고, 신라계 또한 양국 합병후 40여 년을 경과한 즈음 그 세력이 조락한 가운데 성격도 많이 변질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경종대 초기에 있었던 복고적 정변의 와중에서 자구책을 구했던 광종대의 왕용 계열의 문신 관료 세력은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계 정치 세력과 제휴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종과 구신라 왕실과의 혼인이 성사됨으로써 신라계 정치 세력이 급

상승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경종의 효과적인 수습책에 의하여 즉위초의 혼란이 안정되면서 광종 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계승되어 급기야 신라계 문신 관료들이 정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성종대에 이르러 마침내 신라계 정치 세력은 광종대의 무자비한 숙청 작업으로 강력한 호족과 개국 공신 계열이 도태당한 힘의 공백기를 기회로 새로운 정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성종 전반기에는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 6두품 계열의 유학자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고 새로이 유교적 정치 이념을 제시하는 등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신라계 지식층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는 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종의 시대 중반에 접어들어 최승로가 죽자 근기(近畿) 출신의 개국 공신·호족 계열인 서희, 이지백, 박양유 등과 같은 세력이 정계의 수뇌부로 등장하였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신라계 유학자군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옛 신라 왕실은 고려 왕실과의 혼인으로 얻어진 지위를 통하여 고려 왕통 계승을 위해 진력하였는데, 이에 편승하여 신라계 세력도 역시 자신들의 생존과 지위 상승을 위해 구신라 왕실의 고려 왕통 계승을 둘러싸고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신라계 정치 세력의 염원은 마침내 구신라 왕실의 외손인 현종의 즉위로 성취되었고, 신라계 정치 세력은 비로소 고려의 정치 사회에서 확고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신라계 세력이 고려의 정치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옛 신라의 우수한 유학자, 문장가들이 고려의 관직자 집단에 광범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동시에 구신라 왕족의 후손의 고려 왕통 계승이 가능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고려 초기의 신라계 정치 세력의 대두와 성장에 대한 연구는 고려 전기 정치 세력의 동향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칠 때 우리는 고려 초기 정치사에 대한 더욱 선명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료의 미비와 필자의 식견 부족으로 이를 명확히 살피지 못한 점을 양해 바라면서 미진한 내용은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많은 선배님들의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문헌

### 1. 資料

鄭麟趾·金宗瑞 等撰, 「高麗史」

金富軾, 「三國史記」

一然,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古典刊行會, 1960.

徐居正, 「東文選」, 民族文化推進會, 1970.

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總覽」上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93.

李蘭暎 編, 「韓國金石文追補」, 中央大學校出版部, 1968.

崔滋, 「補閑集」, 「高麗名賢集」, 成大大同文化研究院, 1973.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 亞細亞文化社, 1984.

許興植 編,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亞細亞文化社, 1976.

黃壽永 編,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 2. 研究著書

朴龍雲,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5.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邊太燮 編,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歷史學會, 「韓國史論文選集(高麗篇)」, 一潮閣, 1977.

李基白 編,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李基白,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李基白, 盧鏞弼, 朴貞柱, 吳瑛燮 共著, 「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1993.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도서출판 혜안, 1996.

鄭容淑,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사, 1988.

河炫綱, 「韓國中世史論」, 新丘文化社, 1989.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洪承基 編, 「高麗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黃善榮, 「高麗初期 王權研究」, 東亞大學校出版部, 1993.

### 3. 研究論文

姜喜雄, 「高麗初 科擧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韓國의 傳統과 變遷」, 高麗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第7輯, 一志社, 1977.

具山祐,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 「韓國史研究」第78輯, 韓國史研究會, 1992.

金光洙,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史學志」第7輯, 檀國大 史學會, 1973.

金塘澤,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元年 田柴科」,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金杜珍,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韓國學報」第15輯, 一志社, 1979 ; 「均如華嚴思想研究」, 韓國研究院, 1981.

金蓮玉, 「高麗時代 慶州金氏의 家系」, 「淑大史論」第11·12 合輯, 淑明女子大學校 史學會, 1982.

金福熙, 「高麗初期 官階의 成立基盤—涇西豪族의 動向과 관련하여—」, 「釜大史學」第14輯, 釜山大學校 史學會, 1990.

金毅圭, 「高麗官人社會의 性格에 대한 試考」, 「歷史學報」第58輯, 歷史學會, 1973.

金日宇, 「高麗初期 國家의 地方支配 研究」, 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7.

金哲堧,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 「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中央圖書出版社, 1965 ;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產業社, 1975.

金皓東, 「高麗武臣正權下에서의 慶州民의 動態와 新羅復興運動」, 「民族文化論叢

- 」第2·3輯，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1882.
- \_\_\_\_\_，「崔殷含 - 承老 家門에 관한 研究 - 新羅六頭品家門의 高麗門閥 貴族化 過程의 一例-」，『嶠南史學』第2輯，嶺南大學校 國史學會，1986.
- 盧鏞弼，「光宗 末年 太子 佺의 政治의 役割」，『震檀學報』第68輯，震檀學會，1989.
- 朴玉杰，「高麗時代의 渤海人과 그 後裔」，『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1988.
- 朴龍雲，「1977~1988년의 高麗時代史 研究와 課題」，『國史館論叢』第10輯，國史編纂委員會，1989.
- \_\_\_\_\_，「高麗期 政治史 研究，1989년~1993년의 回顧와 展望」，『韓國史論』第23輯，국사편찬위원회，1993.
- 朴宗基，「高麗時代 社會史 研究動向(1988~1993)」，『韓國史論』第23輯，국사편찬위원회，1993.
- 朴菖熙，「高麗時代 '官僚制'에 대한 고찰」，『歷史學報』第58輯，歷史學會，1973.
- \_\_\_\_\_，「高麗初期 '豪族聯合政權'說에 대한 檢討- '歸附' 豪族의 정치적 성격을 중심으로-」，『韓國史의 視角』，永言文化社，1984.
- 邊太燮，「高麗初期의 政治制度」，『韓祐勛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知識産業社，1981.
- 申澄植，「高麗前期의 歷史認識」，『韓國史學史의 研究』，乙酉文化社，1985.
- 申虎澈，「신라말 고려초 歸附豪族의 정치적 성격」，『忠北史學』第8輯，忠北大學校 史學會，1998.
- 嚴成鎔，「高麗初期 王權과 地方豪族의 身分變化- '豪族聯合政權'說에 대한 檢討-」，『高麗史의 諸問題』，三英社，1986.
- 吳 星，「高麗 光宗代의 科擧合格者」，『高麗光宗研究』，一潮閣，1981.
- 俞炳基，「高麗初 豪族의 動向과 王權強化策-光宗의 王權強化策을 중심으로-」，『全州史學』第1輯，全州大學校 全州史學研究所，1984.
- \_\_\_\_\_，「高麗初期 政治支配勢力에 對한 一考」，『慶熙史學·朴性鳳教授回甲紀念論叢』第14輯，慶熙大史學論叢刊行委員會，1987.
- \_\_\_\_\_，「光宗代의 王權強化와 統治體制에 對한 一考」，『全州史學』第3輯，全州大學校 全州史學研究所，1995.

- \_\_\_\_\_, 「高麗 初期 權力 構造의 分析의 研究」, 『全州史學』第5輯, 全州大學校 全州史學研究所, 1996.
-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中世의 側近政治의 志向」, 『歷史學報』第77輯, 歷史學會, 1978 ;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韓國研究院, 1980.
- 李基白, 「高麗 貴族 社會의 形成」,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
- \_\_\_\_\_, 「高麗 成宗代의 政治的 支配勢力—慶州·羅州 地方 출신의 儒學者들과 近畿地方 출신의 豪族系 官僚들」, 『湖南文化研究』第6輯, 全南大 湖南文化研究所, 1974 ;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
- \_\_\_\_\_, 「高麗 初期 五代와의 關係」, 『韓國文化研究院論叢』第1輯, 梨花女子大學校, 1959 ;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 \_\_\_\_\_, 「崔承老와 그의 政治思想」, 『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1993.
- 李樹健, 「後三國時代 支配勢力의 姓貫分析」, 『大丘史學』第10輯, 大丘史學會, 1976.
- 李在範, 「高麗太祖 卽位時의 社會動向에 관한 一考察」, 『阜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서각, 1995.
- 李鍾旭, 「高麗初 940年代의 王位繼承戰과 그 政治的 性格」,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97.
- 李泰鎮, 「高麗 宰府의 成立」, 『歷史學報』第56輯, 歷史學會, 1972.
- \_\_\_\_\_, 「金致陽亂의 性格—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第17輯, 韓國史研究會, 1977.
- 張東翼, 「金傅의 冊上父誥에 대한 一檢討」, 『歷史教育論集』第3輯, 慶北大 歷史教育學會, 1982.
- 全基雄, 「高麗 景宗代의 政治構造와 始定田柴科의 성립기반」, 『震壇學報』第59輯, 震壇學會, 1985.
- \_\_\_\_\_, 「高麗 光宗代의 文臣官僚層과 「後生讒賊」」, 『釜大史學』第9輯, 釜山大學校 史學會, 1985.
- \_\_\_\_\_, 「高麗初期의 新羅系 勢力과 그 動向」, 『釜大史學』第17輯, 釜山大學校 史學會, 1993.

- \_\_\_\_\_, 「高麗成立期 文臣官僚層의 成長」,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혜안, 1996.
- 鄭容淑, 「高麗 王室 族內婚의 展開와 變質」,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 \_\_\_\_\_, 「公主의 婚姻關係를 통해 본 王室婚의 實狀」, 「高麗王室 族內婚 研究」, 새문사, 1988.
- 秦榮一, 「高麗諸王의 西京巡幸考」, 「濟州大學校論文集」(인문·사회과학편)25, 濟州大學校, 1987.
- 蔡雄錫, 「高麗時代史연구 半世紀(1945~1995)의 동향과 과제」, 「韓國學報」第79輯, 一志社, 1995.
- 崔圭成, 「高麗初期 官僚體制와 政治擔當勢力의 變遷」, 「鄭在覺博士古稀紀念 東洋學論叢」, 고려원, 1984.
- 河炫綱, 「高麗西京考」, 「歷史學報」第35·36合輯, 歷史學會, 1966.
- \_\_\_\_\_, 「高麗初期 崔承老의 政治思想 研究」, 「梨大史苑」12, 梨大史學會, 1975.
- \_\_\_\_\_,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7.
- \_\_\_\_\_, 「光宗의 王權強化策과 그 意義」,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 韓圭哲, 「高麗來投·來往契丹人」, 「韓國史研究」47, 韓國史研究會, 1984.
- 許興植, 「高麗禮部試登科錄」,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 \_\_\_\_\_, 「高麗 科擧制度의 成立과 發展」,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4.
- 黃善榮, 「高麗 太祖時期의 官僚研究」, 「東義史學」第3輯, 東義大學校 史學會, 1987.
- \_\_\_\_\_, 「高麗 光宗·景宗代의 政治的 推移」, 「高麗初期 王權研究」, 東亞大學校 出版部, 1988.
- \_\_\_\_\_, 「高麗初期 政治勢力의 動向과 3省 6部制 成立의 背景」, 「釜山女大史學」第10·11合輯, 釜山女子大學校 史學會, 1993.
- \_\_\_\_\_, 「高麗 光宗代 政治改革의 方向」, 「東義史學」第11·12合輯, 東義大學校 史學會, 1997.

<Abstract>

**The study of the political power group of Silla origin  
in the early Koryeo era**

Han Jae-Young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in Young-il**

The early Koryeo era, that is, the period of about 70 years reaching King Seongjong Age since the opening of Koryeo dynasty is the times which has been issued by much interest and dispute the while as a turning point in period. In the present text, especially taking notice of the political power group of Silla origin among the political power groups leading the society of the early Koryeo era, the writer has intende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the main cause which kept alive in the political society of Koryeo even after Silla collapsed and progressively enabled them to rise to a political leading power group.

I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theme to look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power group of Silla origin and the leading power group of Koryeo. Because the case is pretty rare that rose to a political leading power group of new dynasty as royals or ruling classes of national ruin. It's especially much more in case of no dynasty change by revolution or conquest. Nevertheless how could the political power group of Silla origin be promoted to this position and through what process, rise to a political leading power group gradually?

In the present text, the writer pointed out to solve this question that the political power group of Silla origin was the leading power group not steering

only the early Koryeo era but also thereafter the society of Koryeo continuously. I made clear that the power group of Silla origin in the early Koryeo era had not influenced steadily only on the throne succession problem and structure maintenance process issued, passing King Gwangjong and King Gyoungjong years through since King Taejo but also progressively proposed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newly and appeared to be a main group carrying this out in the structure maintenance process of King Seongjong Age.

It is the term of about 70 years from King Taejo Age to King Seongjong Age about the study of the writer in the present text. And looked about how the power groups of Silla origin had kept reinforcing their positions influencing on the early change of government, the political reformation and the throne succession during this term. Especially examined the inflow process to Koryeo and centering the background enabling the political power group of Silla origin to rise high up at the times of from King Gwangjong Age to King Seongjong years. The word “political power group of Silla origin” here means the political power group centering noble and rich Silla people who kept the homogeneity to some extent thinking of their origin as Silla.

Finally, the reason why the power group of Silla origin could survive in the political society of Koryeo could be mainly compressed in two. One is that the excellent Confucians and writers could take their places as a government officer group of Koryeo extensively, the other can be said that it was possible to succeed to the Koryeo throne tradition of old Silla royal descendant.

Surely, I think that there'll be many inferential contents by not examining various materials because of the writer's little knowledge. But tried to approach the understanding of political ruling power group of the early Koryeo era arranging the research results of the while somewhat insufficiently.

---

\* A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February, 2001.